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10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1월 4일)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전 세계 이모지서 '사찰' 왜 누락됐나

'유니코드 협회'가 이모지 보급
협회 측 '표준코드' 설정 돼야
온라인 의사소통서 사용 가능
주요기업 이모지에 '사찰' 없어
'글로벌 전법' 걸림돌 우려 제기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에서 불교 '사찰' 이모지가 없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모지 누락 배경에 전 세계 주요 기업에 이모지를 배포하는 '유니코드 협회(Unicode Consortium)'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에서 이모지를 제공받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등 글로벌 대기업에서도 삼성과 같이 불교 사찰 이모지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 비영리 단체인 유니코드 협회는 '그림문자'인 이모지를 제작해 전 세계 주요 기업에 배포한다. 이모지도 하나의 문자로, 온라인에서 사용할 때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표준코드'를 설정해야 하는데 협회가 이모지 표준코드 개발을 담당한다.

만들어진 표준코드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화웨이, 조이픽셀스 등 전 세계 기업으로 발송하고, 코드를 받은 기업은 각 사의 개성에 맞춰 이모지 디자인을 변환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유니코드 협회 소속 이모지 검색 도구인 '이모지피디아(Emojipedia)'에 따르면 협회가 제작한 이모지는 총 3600개에 달한다. 유니코드 협회에서는 "전 세계 온라인 인구의 92%가 의사소통에서 이모지를 사용한다"며 "3600개 이상의 이모지가 얼굴, 날씨, 차량 등 다양한 주제를 나타낸다"고 홍보한다.

협회가 배포하는 종교 장소 관련 이모지는 기독교의 '교회', 이슬람교 예배당인 '모스크'와 대표 성지 '메카', 힌두교 사원, 유대교 회당, 일본 토속종교 신도의 '신사' 등 6곳으로 불교 사찰은 제외됐다. 삼성의 갤럭시 이모지에서 사찰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유니코드 협회가 운영하는 이모지피디아 홈페이지에서는 별도의 '기념일 코너(이벤트&토픽)'를 만들어 이웃종교 기념일 이모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힌두교 축제 등불을 나타내는 '디왈리', 유대교 명절인 '하누카', 이슬람교의 신성한 달인 '라마단'은 물론, 아일랜드 종교 축제이자 가톨릭교의 공식 종교 축일 '성 패트릭 데이'도 이모지로 제작,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축제 '베삭(Vesak)데이'는 물론, 불교 관련 이모지는 누락됐다.

스마트폰 이용과 온라인 채팅 활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모지가 전 세계 인구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어도비가 2022년 발표한 '글로벌 이모지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의 68%는 온라인 대화 시 단어를 이모지로 대체한다고 답했다. 또한 88%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모지가 정서적 교류와 공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동의했다. 때문에 불교 이모지 소외가 고착화될 경우 향후 글로벌 전법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이모지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들은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며 "이모지에 불교 사찰을 포함하는 것은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내부를 향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그간 불교계가 급속히 변화하는 뉴미디어·디지털 환경에 적응과 대응이 미숙해 이번 이모지 문제를 간과한 것 같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즉각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굳어지면 불교의 미래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과 후저우시불교협회는 11월 27일 후저우 장흥현 천호암에서 '한중불교우호교류센터(법원루)' 기공 · 시삽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주춧돌에 시삽을 하고 있는 모습.

태고종·中불교, '한중불교우호교류센터' 건립한다

11월 27일 후저우 천호암서 기공식
승려교육, 연구 위한 MOU 체결도
천호암 부지에 1200㎡ 규모로 조성
"태고 법손들 위한 구법 성지될 것"

태고종 종조 태고 보우 국사가 임제선사 제18대 법손 석옥 청공 선사에게 법을 인가 받은 중국 후저우 천호암에 불교 전법·교류를 기리는 우호교류센터가 건립된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상진 스님)과 후저우시불교협회(회장 계룡 스님)는 11월 27일 후저우 장흥현 천호암에서 '한중불교우호교류센터(이하 법원루)' 기공·시삽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조성된 천호암 대웅보전 뒤편 부지에 건립되는 '법원루'는 1200㎡ 규모로 조성되며, 석옥 청공-태고 보우의 전법과 불교문화교류를 기념하는 전각이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고종은 후저우시불교협회에 법원루 건립 기금 5만 위안(한화 1억여 원)을 기부했다. 나아가 양측 불교계는 승려교육, 공동 연구 등 원할한 교류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 협약을 체결했다.

후저우시불교협의회장 계룡 스님(천호암 주지)은 "법원루 건립은 한국, 중국 불자들이 한 뿌리의 법맥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임제의 법을 이은 태고 보우 국사의 법손을 위한 전각에 언제라도 찾아와 우호를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천호암은 한국불교 및 태고종 종조인 태고 보우 국사가 석옥 청공 선사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 57세 제자로 의발을 전수 받은 곳"이라면서 "한중 양국 불교의 의미 있는 역사적 도량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법원루의 주춧돌을 시삽하는 의식에 참석하게 돼 기쁘다. 이는 임제 선풍을 크게 떨친 석옥 청공 선사에 이어 임제 정책 제19대 태고 보우 국사의 법손으로 무한한 기쁨이며 자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공식에 앞서 한국과 중국 양국 불교계는 천호암 대웅보전 개광법회를 열고 조산(朝山) 예조(禮祖) 의식을 봉행하며 석옥 청공 선사와 태고 보우 선사를 예경했다. 11월 26일에는 석옥 청공·태고 보우 법맥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했다.

〈태고종 방중 특집 12 · 13면〉

중국 후저우=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제36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공로상에 일운 스님 · 정재화 불자
12월 4일, 역사문화기념관서 시상

제36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 수상자로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11월 25일 불기2568(2024)년 '제36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포교대상은 포교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스님과 불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불교적 자긍심 고취와 포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종정 표창) 수상자 돈관 스님은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일상생활과 조화로운 지역포교 실천을 목표로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주지 소임을 역임했다. 당시 템플스테이와 박물관 개원을 비롯한 가람정비와 불교대학 개설을 통한 교육포교에 진력했다. 학교법인 '동곡학원'을 설립해 선화여고를 지역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과 건



학위원장, 사단법인 상월결사 제2대 이사장으로서 미래불자 양성에도 힘썼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 각 세대 눈높이에 맞춘 지원은 물론 장학제도를 통해 2000명의 불교계 장학생을 양성했다. 특히 동국대 29개 단과대학에서 불교동아리 창립을 견인하고, 불교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등 종립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가치관이 인재양성에 자양분이 되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제36회 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은 12월 4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김내영 기자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 성지순례 안내

- 연말연시 열암곡 마애부처님 친견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입니다.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동참과 기도는 희망의 미래불교를 만드는 불사입니다.

● 순례 안내 : 사찰(단체)의 경우 미래본부로 미리 상담 또는 일정을 알려주셔요
- 열암곡 현장 기념품 지급 : 기도의례집, 개인방석, 생수, 기념품 등
- 필요한 경우 기도법사 스님이 동행안내 및 기도를 진행해 드립니다.

● 순례 문의 : 02-730-0883 (조계종 미래본부) / 열암곡 순례정보 ▶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위원장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총 무 원 장 진 우

「천년을 세우다」 후원동참 농협 301-0248-0882-41 (예금주 아름다운 동행) 문의 : 02-6273-0108 ARS : 060-700-0012 (한통화 3천원)

“지역불교 활성화 ‘사회참여’에 달렸다”

미래본부, 11월 28일 보고회 개최
박수호 교수, 지역불교 활성화 발표
시민 101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불교 호감도↑ 사회참여도↓
불교 사회참여 방안 모색 필요”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종교 환경 변화에 따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불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불교의 사회참여 방안에 대한 실천적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성원 스님)가 11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교구(지역불교)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보고회’에서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교수는 이와 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올해 6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일반인 717명, 공공영역 종사자 3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사회 내 불교의 신뢰 평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

박 교수는 불교가 지역주민과 정서적 유대감이 가장 긍정적인 종교라고 설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종교(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무속, 기타 종교) 중 불교는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 42.4%, ‘호감있는 종교’ 39.8% 등 수치를 나타냈다. 박 교수는 이런 설문결과가 불교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호감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영역과의 관계 원활도 측면에서 불교가 전체의 19.1%를 차지하며 지역주민에게 불교는 사회참여도가 다소 낮은 종교로 비춰짐이 나타났다. 박 교수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공활동을 하는 종교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불교는 전체 설문참여자 17.9%의 선택을 받았다”며 “불교는 가장 많은 지역주민에게 긍정적 인식을 주는 것에 비해 사회적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다소 적다고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교수는 설문 참여자들이 불교계가 사회적 약자와 인권 관련 활동을 확대하길 바라는 점에 주목했다. 박 교수는 “전국의 다섯 권역(서울, 중부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별로 ‘불교가 신뢰받기 위한 최우선 활동’을 질문했을 때 ‘사회적 약자와 인권 활동(평균 33.2%)’과 ‘정신 건강 관련 활동(평균 40.18%)’ 확대를 요구했다”며 “이것은 지역사회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불교와 지역사회의 협치 실현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조사결과에 따른 불교와 지역사회를 협치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사회 소외계층 위한 불교복지 강화 △불교계의 윤리적 실천운동 선도 △불교단체와 불교시민사회단체 역할 확대 △사찰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정신 안정을 위한 불교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안했다.

보고회에 앞서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흔히 종교위기시대라며 탈종교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재, 종교계 역시 새로운 역할 모델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사찰과 연구기관이 함께 한 교구와 지역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 연구는 미래 불교를 만드는 중요한 포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보고회는 사찰과 지역사회 협치의 모범사례를 보여준 ‘제2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과 ‘직지상생포럼’ 사례 발표로 이어졌다. 아울러 사찰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한 서울 소재 사찰 호압사(주지 현민 스님)와 성림사(주지 현담 스님)의 특성화 방안 논의도 이뤄졌다.

‘천년을 세우다’ 종책사업에 동참 행렬

중승대 총동문회, 동학사 승가대 등
조계종 포교사단도 3861만원 전달

‘5cm의 기적’으로 불리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계종 종책사업 ‘천년을 세우다’에 스님과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회장 성행 스님, 의왕 청계사 주지)와 충남 공주 동학사 승가대(학장 명오 스님), 영주 부석사 석연회(회장 박헌옥)는 11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을 전달했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은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중앙승가대 동문들이 종단 목적사업에 함께하자고 뜻을 모아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중앙종회의원들 중 중앙승가대 출신 동문모임이 있는데 앞으로도 동문회 차원에서 종단 불사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중승대 총동문회는 11월 22일 ‘천년을 세우다’에 1000만원을 전달하고 지속적 동참을 약속했다.

동학사 승가대 신임 동문회장 우하스님과 전임 회장 거제 총명사 주지 호석 스님은 불사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총명사 주지 호석 스님은 “총무원 주요 종책사업 불사의 원만 회향을 위해 동문회에서 뜻을 모아 기금을 전달한다”며 종단불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같은 날, 부석사 석연회는 불사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사업의 원만 회향을 발원했다. 이화춘 부석사 신도회장은 진우 스님에 “‘천년을 세우다’ 불사 소식을 듣고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석연회에서 매년 모연하는 회비를 기금으로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가불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 삼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영석)은 11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3861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포교사단은 선명상 보급을 확산해 전법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영석 단장은 “그동안 포교사단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강릉 인월암 산불 구호금 등을 전달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는데 이번에는 약소하지만 종단사업에 일조하고자 성심성의껏 기금을 모연했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보시와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무원장 스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기금을 전달해준 불자들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는 현재 유네스코, 국가유산청, 국립공원공단, 경북도청, 경주시 등 관여 기관만 6곳이다. 행정적 절차를 거치느라 다소 더디지만 원만한 회향을 위해 조계종은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가령 기자

조계종, 김영록 전남도지사에 감사패

총무원장 진우 스님, 불교유산 보존 노력 공로 치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1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불교문화유산 보존 활동에 힘쓴 공로를 치하하며 감사패를 전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전라남도는 전국 25개 교구본사 가운데 5개 주요 본사를 간직한 곳”이라면서 “많은 불교문화유산이 보존돼 있는만큼 전라남도 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록 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문화유산이 잘 보존돼 후세에 전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다”면서 “종단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불교문화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된 전 세계인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앞으로도 조계종과 함께 불교문화유산을 소중하게 보전하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현재 담양군에서 추진 중인 국제명상센터 건립도 언급하며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제명상센터가 완공되면 세계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며 “조계종과 협력, 지역에서 세계명상대회가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시대 맞는 종헌종법 위해 면밀히 살필 것”

종헌종법특위 11월 26일 회의
후반기 논의…간사에 원각 스님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후반기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가 첫 회의를 열고 종헌종법 미비사항 검토와 제안을 통한 현실에 맞는 종무행정 실현을 다짐했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위는 11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선광 스님을 비롯해 위원 만당 스님, 도륜 스님, 각진 스님, 성원 스님, 철우 스님, 원각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 중앙종회 사무처장 재안 스님이 참석했다.

위원장 선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법과 포교법, 선거법, 종무원법 등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며 “종헌 종법이 현시대에 맞게 다듬어져, 종무행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스님들은 종헌 및 종법에 대한 정비와 미비 사항을 면밀히 살피며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만당 스님은 “종법종법을 뛰어넘는 종령 규칙이 있다며 잘 살펴 올바로 갈 수 있게 할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활발한 논의로 성과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철우 스님도 “내년 4월 조계종 총무원1원 체제로 개편되는 시점에서 종헌정법특위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협조하며 시대에 맞는 종헌종법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심도있는 논의로 성과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헌종법특위 간사는 원각 스님이 선출됐다. 원각 스님은 “전반기에도 짧지만 간사를 살았다. 위원장 스님 잘 모시고 위원스님들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2차 회의는 12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2025년 1월부터 매달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 오후 2시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임은호 기자





군승의 날 56돌…“군불교 발전에 힘 모으자”

11월 26일 국방컨벤션서 기념식
유공 군승 · 공로상 수여식 진행
실원 법사 총무원장상 수상해
금산사 도영 대종사 1억원 전달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군승 파송 56주년을 맞아 군포교에 앞장섰던 유공군승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제56주년 군승의 날 기념행사’을 봉행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11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 대연회장에서 ‘제56주년 군승의 날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1974년부터 군불교 발전의 일익을 담당했던 금산사 조실 도영 대종사는 영상법문을 통해 “군법당에 다닌 지 50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군승 여러분이 어려운 포교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군포교를 ‘포교의 황금어장’이라 부르는 만큼, 많은 분이 군불자 양성에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군승들도 지치지 말고 책임 있게 계속 활동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격려했다. 대종사는 군포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격려사에서 “산사에 입문하고 군문(軍門)까지 들어온 군승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한다. 승복을 벗고 군인 나팔 소리에 기상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행사 자체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군승들의 적극적인 전법으로 한국불교 미래인 청년층에 부처님 가르침이 스며들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교에 앞장섰던 유공군승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총무원장상은 계룡대 실원 진승필 법사가 선정됐다. 실원 법사는 “수많은 인연의 땀과 희생으로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다. 특히 군승들을 이끌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께 이 영광을 돌린다”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갚아나가고 희생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포교원장상은 19 전투비행단의 현광 진병은 법사와 진오 손기준 법사가, 군종특별교구장상에 육군사관학교 현혜 권기태 법사, 육군 천경 박성현 법사, 육군 3사단 금담 주기선 법사, 국방부 군종정책과 정광 김웅 법사가 수상했다.

앞서 군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불자들의 포교활동을 치하하는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군종교구는 ‘젊은 불교 활성화’를 목표로 2004년부터 군종교구에 군포교 후원금을 보시하고 있는 대한불교진흥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진욱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은 “1975년부터 진흥원은 젊은 층 포교에 관심이 많아, 지속적으로 군법당을 후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진흥원은 군포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공로패에는 호국연무사 수계법회를 11년간 지원한 안심사 주지 인득 스님, 37년간 32사단 장병을 위해 점심공양을 마련해준 구암사 회주 북천 스님, 2006년부터 군종교구를 후원한 이정림 불자에 전달됐다. 호국철갑사 주지 덕현 스님은 30년간 ‘민간 성직자’로 군포교에 이바지해 ‘30주년 민간성직자 공로패’를 받았다.

또한 군종교구는 30년의 군법사 생활을 회향하는 보경 함현준 법사에 전역 기념패를 전했다. 보경 법사는 회향사에서 “군문에 들어와 30년 8개월의 시간을 장병들과 함께 했다. 제게 부처님은 푸른 군복을 입은 장병들이었고 땀냄새 가득한 연병장이 군법당이었다”며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부처님 인연을 만나 환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후배 군승들이 정성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 불기협 기자상 ‘2관왕’

임은호 차장, 올해 대상 수상
김내영 기자, 기획 · 해설 부문


임은호 차장


김내영 기자

올해 한국불교기자상에서 현대불교신문이 2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은 본지 임은호 차장의 신년특집 기획 ‘이젠 브랜딩 시대’가 선정됐으며, 기획·해설 부문에서는 김내영 기자의 봉축특집 ‘등은 서원이다’가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보배, 이하 불기협)는 11월 26일 금강신문 대표이사실에서 심사위원회를 열고 2024년 한국불교기자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심사위원회는 “올해의 수상작들은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며 깊이 있는 취재와 분석으로 독자들에게 새로움을 선사했다”고 평했다.

심사위원회는 임은호 차장의 ‘이젠 브랜딩 시대’를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에, 김내영 기자의 ‘등은 서원이다’를 기획·해설 부문에, 유화석 법보신문 기자의 연속보도 ‘위장 승려가 몰려온다’를 취재·보도 수상작으로 각각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임은호 차장의 신년특집 ‘이젠 브랜딩 시대’는 “포교의 전환점에 있는 한국불교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취재한 완성도 높은 기사로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수준 높은 기획”이라고 수상의 이유를 밝혔다.

김내영 기자의 ‘등은 서원이다’는 오랜 시간에 걸친 취재와 연구를 통해 불교의 ‘등’ 문화를 깊이 있게 조명한 점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등 문화의 전통과 가치를 탐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등 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유화석 기자의 ‘위장 승려가 몰려온다’는 “불교계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짚어냈다”고 호평받았다.

한국불교기자상 심사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 김관규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맡았다. 정현선 기자



동국대, 어린이·청소년 불자 2000명 수계

전국 산하 11개 유치원 · 학교 순회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가 10월 2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 산하 11개 종립학교에서 청소년 불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2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났다. 전계사를 맡은 돈관 스님은 “불교는 미래 세대의 희망과 함께 한다”며 “이번 수계법회가 한국불교의 젊은 전법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동국대는 단과대학별 불교 동아리를 창립하고 ‘영캠프’를 통해 서울과 경주에서 총 4000여 명의 대학생 수계불자를 배출했다.

정현선 기자

사노위, ‘차별금지법 제정 무차법회’ 연다

11월 22일, 2025년 사업계획 논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나설 것”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사상을 실천하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어떤 차별없이 평등한 법석인 ‘무차법회’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11월 22일 서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화엄실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사노위의 2024년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 사업안을 발표,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 사업계획(안)에서 양한웅 사노위 집행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해 활동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양 위원장은 “사노위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은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활동 방향에 변화가 필요하다. 오체투지와 같이 사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위원장 고금 스님은 “활동가와 사회적 약자 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불교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며 “성소수자, 노동자, 난민 등이 차별 없이 함께할 수 있는 ‘무차법회’를 정례적으로 열어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성욱 활동가는 활동에 구체적인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사노위는 2025년 사업계획안을 발표하고, 노동, 인권, 빈곤, 이주노동,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재 기자

대행 선사·에크하르트 종교사상 고찰한다

대행선연구원, 12월 14일 제21회 계절발표회

한마음주인공 관법으로 생활불교를 전했던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와 중세 신비주의 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1260~1323)의 종교사상을 비교 고찰하는 발표회가 열린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 안양본원 3층에서 제21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행 선사의 선사상과 교화행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논문이 발표된다. 권서용 부산대 한국민족연구소 연구교수는 ‘선사 대행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종교사상’를 통해 대행 선사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종교사상을 비교 고찰한다.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묘공 대행의 기세간에 대한 관점 고찰’을 통해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 즉 기세간(器世間)을 설명하는 불교 교리들을 살펴본다.

이날 계절발표회는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며, 토론은 동국대 정선 스님, 한성자 국사편찬위원회 실록영역위원,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김성옥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가 맡는다.

한편, 2023년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서는 포항지원장 혜문 스님이 포항지원 도량 현황과 불사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031)470-3277 신중일 기자

제1회 쿠무다X한국불교대학생연합회
한국불교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위한 공모전
2024. 11. 25 ~ 2024. 12. 10



응모자격
대불련 소속 불교 동아리의 회원

응모주제
한국불교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나아갈 방향

응모형식
주제에 부합하는 모든 형태의 개인 창작물
(에세이, 보고서, 기획안, 제안서, 칼럼, 그림, 포스터, 캐릭터, 사진, 영상, 작곡 등)
※ 텍스트 형식의 창작물이 아닐 경우 작품에 대한 설명을 신청서에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모일정
접수기간 : 2024. 11. 25 ~ 12.10
결과발표 : 2024. 12. 17
시상식 : 2024. 12. 23 15:00 쿠무다 B1 콘서트홀
(쿠무다 개원 11주년 기념식에 수상식이 있습니다.)

시상부문

구분	시상인원	시상내역
대상	1명	300만원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3명	100만원

접수방법
대불련 홈페이지 공지 사항
(http://www.kbuf.org)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 받아, 신청서와 함께 공모 작품을 이메일로 접수.
*이메일: ilovekbuf108@gmail.com

유의사항
공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유의사항을 꼭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10-7323-0239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明京文化財團 MYEONG KYEONG CULTURAL FOUNDATION
대한불교조계종 대 운 사
문화예술 사단법인 KUmuda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1963

자비 손길, 인도 향하다…비구니회 의료봉사

11월 22~28일, 분황사 의료센터서
520여 명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해
초음파 기기·후원금·컴퓨터 전달
광용 스님 "주민 건강이 우리 행복"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관세음학교 학생들에게 간식과 영양제 등을 선물하고 있는 회장 광용 스님과 임원진 스님들.

전국비구니회 제13대 집행부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인도를 찾아 현지 주민들에게 의료봉사를 진행한 것. 기초검진과 의약품 지원 등 정성스러운 보살핌으로 국경을 넘어 자비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11월 22~28일 인도 붓다가야 분황사 내 의료센터에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진단·치료하는 의료캠프를 실시했다. 의료캠프에는 회장 광용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 소임자 스님들과 산부인과 전문의 권현옥 불자, 비하르주 프리메리 메디컬센터 현지 의사와 외과 학생 10여 명이 동참했다.

인도 붓다가야 지역은 부처님의 자취가 깃든 곳이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이들은 체중 미달과 영양 부족 상태가 심각하고, 여성들은 빈혈과 자궁 관련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부·관절질환 역시 흔한 문제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의료봉사단은 분황사 의료센터와 붓다가야 세와비거하 마을 관세음학교를 오가며 총 520여 지역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역주민의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해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에 대한 사용법 설명과 질병의 적절한 관리 방법도 안내했다. 특히 권현옥 산부인과 전문의는 초음파 검사를 활용한 여성 특화 진료를 진행하며 문제를 진단하고 올바른 치료법을 일러줬다.

스님들은 의료봉사와 함께 현지 아이들의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낯선 환경에서 검진받는 것이 두려울 수 있는 아이들에게 볼펜과 인형, 비타민을 선물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관세음학교 전교생에는 간식과 신발, 영양제, 기생충 약을 제공했다.

의료봉사에 앞서 전국비구니회는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기금 1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의료약품, 컴퓨터 1대, 3000만원 상당의 최신 초음파 기기를 분황사 의료센터에 지원했다. 초음파 기기는 권현옥 산부인과 전문의가 후원했다.

회장 광용 스님은 "이곳 붓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이룬 석가모니 부처님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의 귀중한 생명'이라고 하셨다. 붓다가야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은 곧 우리 행복이자 수행"이라며 "이번 의료봉사 캠프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여러분의 건강을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후원에 도움을 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 스님들과 분황사 의료센터 개원을 지원한 백천문화재단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붓다가야 지역주민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전하는 의료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의료캠프로 분황사 의료센터 운영 실정을 파악한 전국비구니회는 향후 의료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의료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비구니회의 의료캠프는 인도 언론 SBN(Saurashtra Bharat)에 소개되는 등 현지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조계종복지재단 '2024년 불교사회복지 유공자' 선정

11월 25일 단체·개인 등 32명 발표
총무원장 표창에 보문복지회 선정
12월 5일, 전통문화공연장서 시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11월 25일 불교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들을 발굴한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복지재단은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를 발굴하고 포상해 불교사회복지인으로서 자긍심을 드높이고 정진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불교사회복지 유공자 선발을 이어왔다.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불교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단체, 사찰 등에서 추천을 받았고 올해는 법인, 시설 등 단체 11곳과 개인 21명이 선정됐다.

불교사회복지 현장에서 노력한 이들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표창 △국회의장 공로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등이 시상된다.

총무원장 표창은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이사장 연규 스님)가 받는다. 보문복지회는 불교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노력 중으로 후원품 전달 등을 통해 여수지역 사회 내 자비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 단체 및 개인 10곳이 선정돼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표창 '사회복지시설 단체운영부문'은 김용학 공주시니어클럽 관장이 선정됐다. 김 관장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기관이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불교사회복지 발전공헌부문'에 김영광 연화보호작업장 선임 직업훈련교사, 이경심 홍천군장애인복지관 과장, 이욱재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부장, BTN불교TV가, '자원봉사후원 활동부문'에 고명순 판교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와 조준분 황토정 대표 외 단체 4곳이 수상한다.

유공자 시상식은 12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제26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진행된다. 같은 날, 복지재단은 2025년에 맞이하는 재단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의 방향성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재단 창립 30주년인 내년을 앞두고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대회는 올 한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김가령 기자



조계사 김장 나눔전
"첫눈 속에 이웃사랑 나눠요"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11월 27일 오전 10시 대웅전 앞마당에서 '이웃과 함께 행복한 조계사 김장 나눔전'을 개최했다. 올해 김장은 총 8t 분량, 4000포기의 배추로 진행됐으며 이 중 약 3000포기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종로구주민소통센터 등을 통해 종로구 거주 소외계층에게 전달된다.

행사에 앞서 해남군과 NH농협 종로금융센터는 각각 신선한 배추와 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주지 담화 원명 스님은"힘겨운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모두가 정성껏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현선 기자

서울경찰청 송년법회…"대한민국 안전 위해 정진할 것"

11월 27일 봉은사 법왕루서
200여 불교, 경찰 인사 동참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 경찰들이 대한민국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불퇴전의 힘을 주시옵소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불교회가 11월 27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행한 '불기 2568년 경찰 송년 대법회' 동참대중이 발원문 낭독으로 이같이 서원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서울 경찰



불자들이 한 해 활동을 되돌아보고 부처님 원력으로 새해에도 안전한 임무수행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서울경찰청 경승실장), 봉은사 부주지 허허 스님, 법주사 한주 각운 스님, 서울청 경승 진철 스님, 강남경찰서 경승실장 공일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손제한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 송원영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법문에서 "경찰의 스트레스와 업무 강도가 매우 강하다고 알고 있다. 특히 반복적인 업무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한 번씩 스스로를 일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가 필요하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경승들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서울 경찰청의 모든 불자가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축사에서 "우리 서울 경찰은 새해에도 '시민의 안전과 평안'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민재 기자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 '명예박사' 학위

중앙승가대, 11월 26일 수여식
종단 발전·불교문화 전승 기여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이 지역불교 활성화와 불교문화 전승·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사진〉 중앙승가대(총장 월우 스님)는 11월 26일 자비관 4층 대강당에서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성효 스님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성효 스님은 용주사 주지로 종단 안정과 발전에 진력하고, 다양한 대외적 활동으로 불교문화를 알린 공적을 높이 인정받아 중앙승가대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게 됐다.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3000여 동문 스님들과 교수, 전직원을 대표해 성효 스님의 명예 철학박사 학위 수여를 축하한다"며 "중앙승가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늘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성효 스님께 감사하다. 후학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효 스님은 "오늘 중앙승가대 동문이 됐다. 서로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모두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작은 힘들이 모여 큰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중앙승가대 발전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보선 대종사,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도 동참해 성효 스님의 명예 박사학위 수여를 축하했다.

김내영 기자

사회부·종평위, 종교 화합 학술세미나

12월 11일, 16일 두 차례 진행
천진암·주어사지 등 주제로

불교계가 광주 천진암, 여주 주어사지, 홍성 홍주읍성 등지에서 벌어지는 천주교 성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조계종 사회부(사회부장 도심 스님)와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는 12월 11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종교편향을 넘어 화합의 장으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천주교의 역사 왜곡과 지자체의 종교 편향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종교 간 평화 공존을 위해 열린다.

첫 번째 학술세미나는 '천진암-주어사지 종교갈등 해결을 위한 실체적 접근'을 주제로 12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18세기 후반까지 사세가 상당했던 천진암과 주어사는 당대 학자들에게 강학의 장소로, 역사적 의미와 함께 불교의 포용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세미나에서는 역사적 고증과 문헌을 기반으로 한 발제를 통해 전체적 상황을 살펴보고, 두 사찰지에 대한 천주교의 성지화에서 비롯된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어서 열리는 두 번째 학술세미나는 '홍성지역 불교사의 재조명-홍주읍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불교사원지'를 주제로 12월 16일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가령 기자

청담·광동학원, 우정과 화합 한마당

11월 23일 청담고 실내체육관서
교직원 간 화합·친목 다져



불교 종립학교인 청담학원과 광동학원이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화합 한마당을 열었다.〈사진〉

청담학원(이사장 태원 스님, 도선사 주지)과 광동학원(이사장 인묵 스님, 조계종 어산어장)이 11월 23일 평택 청담고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경기 불교종립학교 친선 한마당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청담·광동학원 교직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마당대회에서는 '훌라후프 단체전' '파도타기' 등 교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청담학원 이사장 태원 스님은 "오늘 화합 한마당은 그동안의 열정과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자리다"며 "광동학원과 청담학원 가족의 우정과 화합이 한층 더 깊어지고 돈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동학원 이사장 인묵 스님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청담학원과 광동학원이 친선 교류의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진흥원, 군포교 지원금 7000만원 전달

11월 25일 조계종 군종교구에
'2024 젊은 불교 활성화' 사업

진흥원이 군포교 활성화를 발원하며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법원 스님)에 지원금을 쾌척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11월 25일 '2024년 젊은 불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계종 군종교구에 군포교 지원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

해당 사업은 격오지부대 포교, 장병 수계법회, 군승 연수·교육,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 군포교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한구 이사장은 지원금을 전달하면서 "군승 등 군종교구 관계자들의 지원과 노력은 장병들이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희망적이고 안정적으로 군 생활을 이어가고, 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청년 장병에게 불교의 지혜와 자비 가르침 전하고, 청년 불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재 기자



한마음주인공 관법으로 생활불교를 전했던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법어를 노래로 만든 '선법가' 4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담긴 노래는 출 · 재가 제자들의 합창으로 온 법계를 장엄했다.


한마음선원 승단합창단이 선법가 '서천의 푸른나무' 로 음악회의 시작을 알렸다.


본원 어린이합창단은 선법가 · 동요메들리로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본원 청년합창단의 공연은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 했다.

대행 선사 법어, 노래되어 법계 장엄하다

한마음선원, 선법가 40주년 기념 음악회

안양=신중일 · 김민재 기자

한마음주인공 관법으로 생활불교를 전했던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법어를 노래로 만든 '선법가' 4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담긴 노래는 출·재가 제자들의 합창으로 온 법계를 장엄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11월 24일 경기 안양아트센터에서 '선법가 4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선법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에서는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안양 삼막사 주지 탄묵 스님, 염불사 주지 향림 스님과 최대호 안양시장 부부, 김학규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한마음선원에서는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과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본지 발행인),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 등 국내지원장 스님, 한명우 본지 대표이사, 이동복 안양본원 신도회장, 이화행 한마음과학원 부원장, 박종수 신도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행 선사 원력서 시작된 음성포교 40년

'선법가(禪法歌)'는 대행 선사의 뜻을 받들어 안양본원 어머니 합창단이 1984년 창단되면서 시작됐다. 1994년 거사 합창단이 발족되며 한국불교 음성 포교의 새 전기를 이룰 기틀을 세웠다. 대행 선사는 세계를 다니며 진리를 구하는 이들에게 감로법을 전했고, 선법합창단은 이에 함께 하며 음성공양으로 법석을 장엄했다. 또한 선법합창단은 각종 불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선법가를 통해 한마음의 도리를 전파했다.

'선법가'는 한마음선원만의 수행법이기도 하다. 대행 선사의 법어를 합창을 통해 되짚고 마음으로 돌려보는 수행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날 음악회도 '선법가'가 시간과 세대를 넘어 어떻게 대중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선법가를 노래라고 하지만, 자꾸 부르면 지극하게 염원하는 관이 됩니다. 그리고 단합이 될 수 있고요'라고 말씀하신 선법가 가사처럼 모든 인연과 화합하며 관하는 도리를 실천하는 선법합창단이 대행 선사의 법음을 잘 전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진용 선법 거사합창단장은 "선법가라는 대행 선사 말씀을 노래로 제작해 대중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이는 노래가 아니라 큰스님의 법문을 대신 전하는 행위다. 이 같은 선법가 합창은 수행과도 같다"면서 "오늘 음악회도 대행 선사가 만드신 선법가를 사부대중에게 선보인다는 의미로 준비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공연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11월 24일 안양아트센터서 개최
법산 스님 등 2000여 대중 참석
2시간 여 동안 환희의 법석 펼쳐
1984년 대행 선사 원력으로 창단
대행 선사 법어 담은 선법가 공연
"선법가 합창도 일상 속 佛法수행"

노래된 禪法, 시공, 세대를 넘다

이날 음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대행 선사 오디오 법문을 바탕으로 펼쳐진 최은희 안무가 창작무 '진(進)'이 음악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한마음선원 승단합창단 60여 명이 선법가 '서천의 푸른나무'를 합창했다.

선법합창단은 '한 시루의 대중이여'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을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반야심경〉 의미를 전했다. 선법보살합창단에서 은퇴한 합창단원으로 구성된 한뿌리 합창단은 '무시일종가'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를 통해 생활 속 수행을 강조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했다.

한마음선원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공연도 있었다. 본원 어린이합창단은 선법가 '대장부' '모두에게 감사해요'와 동요 메들리로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본원 청년합창단의 무대는 말 그대로 '청년'의 에너지로 채워졌다. 선법가 '원통 속을 벗어나려면2'를 합창한 청년합창단은 그룹사운드 '송골매'의 '모여라'를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합창단이 편곡한 버전을 대중에게 선보였다. 밴드 연주와 춤, 안무가 함께 한 청년합창단의 무대는 한 편의 뮤지컬 공연을 보는 듯 했다.

2부 공연은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더욱 풍성해졌다. 지원 연합 선법합창단은 선법가 '정신 발전의 길' '자기의 길을 닦으려면'을 선보였다. 본원 거사 합창단은 대중가요 '바람의 노래' '우리는'을 합창곡으로 편곡해 합창 솜씨를 뽑냈다.

초청 가수의 무대들도 빛을 발했다. 1부에서 선법가 '공무가'와 '아름다운 나라'를 선보인 국악인 하윤주는 2부에서도 선법가 '나 하나 꽃 피어'를 본원 보살합창단과 함께 선보였다. 국악인 김수인은 보살합창단과 선법가 '깊은 물 돌고 돌아'를, 솔로로 '쑥대머리'를 공연했다.

공연의 피날레는 선법합창단의 무대가 장식했다. 선법합창단은 이날 음악회를 위해 새로 작곡된 '물에서 맑은 물 찾기 어렵고'를 초연했고, '공심 공체 둘 아닌 노래' 앵콜 공연까지 선보이며 40주년 기념음악회를 회향했다.

이날 공연에 참석한 대중은 세대를 뛰어넘어 대행 선사의 법어를 되새길 수 있는 환희의 법석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무겸(공군군악대, 22) 씨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같이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오늘 어머니가 합창에 참여하셨는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 간 세대 전승의 현장도 만날 수 있었다. 남동생이 어린이합창단원으로 참여한 조예령(11) 양은 "어린이합창단이 부른 '대장부'가 뭉클했다. 동생이 단원으로 합창해서 더 기뻤다"고 밝혔다. 아버지 조은철(39) 씨는 "그동안 아이가 힘들게 연습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오늘 무대에 선 모습을 보니까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면서 "한마음선원에서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도성지순례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신 날 성도재일을 보드가야 대탑에서
성도재일 기도 법회와 인도 7대 성지순례 11일

2025년 1월 04일 출발 ~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인도성지 중에서 케사리야 대불탑 뿐만 아니라 - 부처님 출가의 길로 추정되는 곳들에 세워진 난단가르 대불탑(인도 최대의 불탑)과 아쇼카대왕의 석주들인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 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 석주등 부처님의 생애를 조명하며 새로운 성지들을 찾아가는 일정으로 순례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 일 정 : 인천 – 델리 – 바라나시 – 보드가야 – 라즈기르 – 영축산 – 나란다대학 – 바이샬리 아쇼카석주 – 아레라즈아쇼카석주 – 라우리야 원형의 아쇼카석주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기원정사 – 아그라 – 델리 –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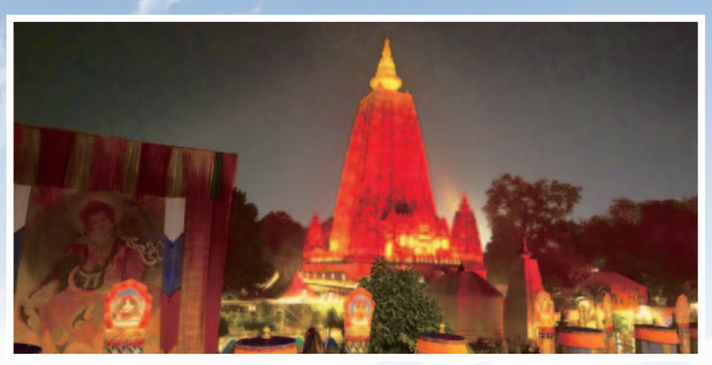
▶ 동참금 : 270만원 특별할인가

▶ 기타 인도성지순례 출발일 : 2025년 2월 15일 출발 ~ 2월 25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2025년 3월 04일 출발 ~ 3월 14일 도착 (인도성지 11일 일정)

일본 교토 벚꽃여행 5일
3월 24일 출발~3월 28일 도착
벚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교토의 명사찰 순례
–교토시내 숙박
▶ 일 정 : 인천–오사카–법륭사–선림사–남선사–청수사–은각사–아라시야마 천룡사–동사–삼십삼간당–천태종 본산 연력사–나라 동대사 등
모두가 벚꽃이 만발한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 동참금 : 199만원

부탄,네팔 성지순례 8일
4월 1일~8일(6박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특히 카트만두에서 부탄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중에서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5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코스입니다.
▶ 일 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410만원

중국 실크로드 돈황 순례 6일
3월 22일~3월 26일(5박 6일)
중국 실크로드 코스는 서안에서 천수 맥적산석굴 돈황 석굴을 지나서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 화청지)–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돈황(막고굴,명사산)–서안–인천
▶ 동참금 : 2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무비 스님 '불꽃 속의 연꽃', 부처님께 올리다

〈火中蓮華〉

11월 23일, 금정총림 범어사 보제루

무비 스님 전집 25권 봉정 대법회
성파 대종사 "무비 스님이 화중연화"
정여 대종사·수불 스님 등 헌정금
류지호 대표이사에 감사패 수여해

이도경 부산지사장 yongjang88@naver.com

"이 시대 살아있는 화중연화가 바로 무비 스님이십니다.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며 감로수입니다."

불꽃 가운데 연꽃을 피워낸 삶, 고통 속에 머물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진리를 전한 이 시대의 대강백. 여천무비(如天無比) 스님의 삶이다. 무비 스님의 일생 대작 〈화중연화〉 전집 25권이 부처님 전에 봉정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11월 23일 경내 보제루에서 무비 스님의 전집출간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화중연화〉는 무비 스님이 일생을 통해 남긴 저서를 모은 전집이다. 81권의 〈대방광불화엄경 강설〉과 공저를 제외한 29종 총 33권의 책을 모아 25권으로 재정리한 전집이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불국사 학장 덕민 스님, 수덕사 전 방장 설정 스님,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등 참석 내빈들은 스님의 책을 봉정하며 축하했고, 정여 스님, 수불 스님, 명심회 성문 스님, 정오 스님은 무비 스님에게 헌정금을 전달했다. 무비 스님은 전집출판을 위해 노력한 류지호 불광출판사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무비 스님은 "모든 깨달은 분들의 말씀은 그대로가 부처님 말씀이다. 그런 까닭에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다이아몬드가 우르르 쏟아진다. 오늘 봉정한 책 속에는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성파 대종사는 "〈화중연화〉야말로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의 말씀을 전부 총망라해 현대인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해석해 놓은 출판물이다. 마음이 메마르고 황폐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이러한 법문 책을 출간하셔서 이 사회 모든 사람에게 감로법문이 내리도록 하는 그런 공로에 대해서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축사를 전했다.

무관 스님은 "동중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중동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오신 스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축사를 전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11월 23일 경내 보제루에서 무비 스님의 전집출간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정여 스님은 "오늘 출간되는 화중연화는 큰스님의 수행과 지혜의 결정체이며 후대에도 변함없이 전해질 소중한 유산"이라며 "무비 큰스님의 법문이 한국불교를 넘어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저희들은 무비 큰스님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후학들이 큰스님 법문집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쿠무다, 불교문화 공모전 연다

대불련 소속 회원 대상으로
11월 25일~12월 10일 공모

한국 불교문화의 방향을 고민하고 창작물로 제시하는 공모전이 진행된다.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1회 창작물 공모전'을 개최한다.

모집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대상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소속 불교 동아리 회원이다. 주제는 '한국불교문화의 사회적 역할과 나아갈 방향'이다.

응모 형식은 글, 그림, 캐릭터, 포스터, 사진, 영상, 작곡 등 개인 창작물이면 가능하다. 이외 에세이, 보고서, 기획안, 제안서 등도 가능하다. 텍스트 형식의 창작물이 아닌 경우 작품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야 한다.

접수 방법은 대불련 홈페이지(www.kbuf.org) 내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ilovekbuf108@gmail.com)로 작품과 함께 접수하면 된다.

결과 발표는 12월 17일, 시상식은 12월 23일 오후 3시 '쿠무다 개원 11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상식 장소는 쿠무다 콘서트홀이다. 공모전 대상은 300만원(1명), 최우수상은 200만원(1명), 우수상은 100만원(3명)의 상금을 전달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난방비 지원금 전달

11월 21일, 1000만원 후원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11월 21일 영도구노인복지관에서 '무비 스님과 함께하는 연탄불공회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조계종부산연합회는 난방비 지원금 1000만원을 후원했으며, 난방비는 부산 8개 구군 소속 노인복지관을 통해 저소득 노인 가구 40세대에 전달됐다. 전달식 후 회원스님들은 영도구 청학동을 방문해 지원세대 대상자 가정에 난방유를 전하고 격려했다.

회장 목종 스님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탄불공회는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 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됐다. 2017년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동절기 난방 지원 사업으로 연탄 나눔이 본격 전개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회복지법인 범어 2024 범어복지대회

11월 22일, 범어사 선문화관

사회복지법인 범어(대표이사 정오 스님)는 11월 22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2024 범어복지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복지대회에는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 사회복지법인 범어 대표이사 정오 스님 등이 동참했다. 표창은 화명종합사회복지관의 이승아, 연화원 박은숙, 수영구 청소년문화의 집 김주경 등 봉사자와 후원자 총 21명이 감사패와 상장을 받았다.

정여 대종사는 "봉사자와 실무자들이 사랑으로 복지를 일궈갈 때 불국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본격화

범어사 · 부산시, 업무협약 체결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와 부산시가 11월 26일 경내 보제루에서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협약을 통해 범어사와 금정산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협약식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박형준 부산시장, 윤일현 금정구청장, 강종인 금정산시민추진본부 대표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은 2006년에 처음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2016년 국립공원 지정을 바라는 10만명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시민 염원이 본격화됐다. 부산시는 2019년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공식 건의했으나 이후 범어사,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 6개 자치구, 주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왔다.



금정총림 범어사와 부산시가 11월 26일 경내 보제루에서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범어사와 부산시 그리고 금정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범어사의 수행환경 보전과 발전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서에는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발전을 위해 부산의 진산(眞山)인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동의 및 상호 협력 △범어사의 수행환경 보전과 산불 예방을 위한 숲길 및 탐방로 개설 지원 △범어사와 그 주변 지역의 발전계획 수립 등 상호 공동 노력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노력해준 관계자에게 감사하다"며 "상생을 위한 발자취이자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오늘의 협약이 길이 남을 것"이라며 격려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부산과 금정구를 위해 범어사가 해야 할 역할에 고심하겠다"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뜻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의 지정 절차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며, 향후 주민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포교사단, 자비의 김치 나눔

11월 24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서

조계종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이하 부산포교사단)이 11월 24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비의 김치나눔'을 개최했다.〈사진〉

김장나눔에는 송재린 부산포교사단 단장, 정분남 전 부산포교사단 단장, 강태산 사무국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아름누리 봉사단 봉사자들이 동참했다. 포교사단 단원들은 김치를 담궈 포장했으며 지원세대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아울러 후원금 200만원을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부산포교사단의 자비나눔에 동참하며 아름누리 봉사단도 100만원을 후원했다. 김장김치는 영구임대아파트 소재 저소득 독거노인 100세대에 각 5kg씩 전달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재가불자들, 禪 대중화 위한 수행정진 돌입

백양사, 11월 23~24일 '참사람 가행정진' 입재

1년간 매월 1회 1박2일 참선수행
'오직 화두 정진' 청규 철야정진
무공 스님 "마음 정돈하는 시간"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는 매월 한번씩 참사랑 가행정진을 진행하며 선 대중화에 앞장설 방침이다.

백양사가 서옹 스님의 '참사람 운동' 유지를 이어받아 8가지 '참사람 청규'를 제정하고 재가불자 수행정진의 문을 열었다.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11월 23~24일 이틀간 경내 선불장(참사람교육관)에서 '불기 2568년 백양사 참사람 가행정진(加行精進)'을 진행했다. 가행정진은 선방에서 30년간 수행한 스님들의 경험과 방법을 재가불자들이 뒤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1회씩 1년 동안 정진하는 수행이다. 이번 정진은 선(禪) 대중화 실현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백양사는 11월 23일 주지 무공 스님, 수좌 일수 스님, 백양사박물관장 동참 스님 등 참선 지도스님들이 모인 자리에 용상방을 설치하고 입재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한 재가불자 45명은 각자 소임을 정하고 정진에 돌입했다.

입재식에서 백양자 주지 무공 스님은 "가행정진은 통해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보고 부처님 제자로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백양사에서 한 달에 한 번 개최하는 용맹정진을 통해 재가불자들이 세속에서 물든 마음을 정돈하고 청정하게 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은 "백양사는 많은 선승이 나온 사찰로, 서옹 스님의 참사람 수행정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수행정진이 운문암, 고불선원 등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불자들도 자기 자신인 '참사람'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백양사박물관장 동참 스님은 "백양사는 고려시대부터 단일 문손이 끊이지 않고 수행가풍이 이어져 온 유일한 도량"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수행정진을 선택한 재가불자분들의 가행정진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백양사는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일수 스님의 관심론 강의에 이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50분 정진, 10분 행선을 진행한다.

가행정진은 △오직 간화선 화두 정진만 한다 △묵언 좌선을 원칙으로 한다 △참선(參禪)은 오직 할 뿐이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깨치려고 하면 깨치지 못한다 △그 무엇이 들어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 △삼매에 들면 삶이 바뀐다. 선정은 지혜로 된다 △오직 마음이 수행한다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고, 본래 청정한 진여본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가행정진이다 등 8가지 청규로 운영된다.

가행정진의 입승 소임을 맡아 정진에 돌입하는 운봉 불자는 "재가불자로서 1400년 선맥의 고향 백양사에서 역대 스님들의 수행을 몸소 경험해보고자 참여했다"며 참여 계기를 밝혔다.

정기 가행정진을 1년간 참여한 재가불자들은 30회, 50회, 100회를 기준으로 안거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백양사는 향후 참가 재가불자를 100명까지 확대해 정기 운영할 예정이다.

충남대 교수불자회 '대원회' 40돌 기념법회

11월 23일 충남대 영탑홀서
"대원회 다시 활성화시킬 것"



대원회는 창립 40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재도약을 서원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충남대 교수불자회 '대원회'가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충남대 교수불자회 '대원회'(회장 오영달)는 11월 23일 교내 영탑홀에서 '충남대 교수불자회 대원회 창립 4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대원회의 4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 동시에 침체됐던 대원회의 활성화를 서원하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법회에는 순천 신행선원장 영명 스님, 공주 동혈사 주지 종성 스님, 부광사 주지 동화 스님, 봉국사 주지 심전 스님, 천장사 중현 스님, 오영달 대원회장을 비롯한 대원회 교수들과 지역 불자들이 함께했다.

심전 스님의 집전으로 시작된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청법가 △입정 △법문 △찬불가 △발원문 △축원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영명 스님은 법문에서 "자비행 속에 깨달음의 열매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지혜만 있고 자비행이 없다면 쓸모없는 '마른 지혜'가 된다. 자비와 지혜를 두루 갖춘 보살행을 실천하는 대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오영달 회장은 "침체를 겪고 있는 대원회가 오늘 40주년 기념법회를 통해 재도약하길 서원한다"며 "대원회가 충남대 교육공동체을 위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의 등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편, 대원회는 충남대 교수들로 구성된 불교신행단체로 1984년 출범해 지역의 산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재상 지사장

광주 화엄사빛고을포교원, 개원 3주년 법회

11월 23일, 경내 대웅전서
광산구 포교도량 거듭 발원

광주 광산지역을 대표하는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이 개원 3주년을 맞이해 기념법회를 열었다.

화엄사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 스님)은 11월 23일 경내 2층 대웅전에서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지역 거점 포교도량이자 대표사찰로 거듭나길 발원했다.〈사진〉

법회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부주지 우석 스님, 여수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과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무등 스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해청 스님을 비롯해 광주정광고 교장 영일 스님, 전병호 신도회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균택·민형배 국회의원, 박상철 호남대 총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화엄사빛고을포교원 주지 연성 스님은 법회 참석자들에 감사를 전하고 "빛고을포교원은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기도하고 부처님을 만나는 곳으로, 수행을 원하면 수행처가 되고 기도를 원하면 기도처가 될 수 있는 좋은 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격려사에서 "전남지역 교구본사 중 화엄사만이 광주에 말사가 없어 원력을 모아 화엄사빛고을포교원을 개원했다"며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도량이 돼 향후 30년, 300년 이어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화엄사 부주지 우석 스님은 축사에서 "3년간 화엄사빛고을포교원을 위해 노력한 연성 스님과 많은 인연에 감사하다"며 "좋은 인연들이 소중하게 발전해 부처님 가르침이 더욱 퍼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무등 스님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균택·민형배 국회의원, 박상철 호남대 총장 등도 축사를 전했다.

이날 화엄사빛고을포교원은 채송화 전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자비의 쌀 2000kg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불련, 전북지구 연합템플스테이

11월 23~24일 전북 금산사서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동참

전북지역 대학 불교동아리 학생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동아리 간 교류를 확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 '덕'(회장 윤서영), 원광대 '여연'(회장 문건우), 군산대 '불동이들'(회장 이원회)은 11월 23~24일 전북 금산사에서 연합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사진〉 템플스테이는 학업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불교동아리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템플스테이 첫날은 전북대 지도법사 우경 스님과 원광대 지도법사 정안 스님의 지도로 진행됐다. 연꽃 컵등 만들기, 스님과의 대화, 예불 등 다채로운 불교 활동으로 학생들은 한층 가까워졌다.

이튿날 학생들은 새벽예불 후 108배 참회를 통해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낮추는 법을 배웠다. 이어 새벽 명상과 금산사 암자 순례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경 스님은 "대불련 학생들이 학업으로 지친 마음을 힐링하고 불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서로 교류·소통하며 각 지회가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비 학생(전북대 20학번)은 "이번 템플스테이로 다른 지회 학생들과 만나고 교류해서 좋았다"며 "서로가 같은 경험을 공유하면 지회 간 유대가 끈끈해져 불교 동아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원정사, 지역주민에 온정 나눠

11월 27일 경내 앞마당서
5000만원 상당 '자비나눔'
미스트롯 배아현도 동참해



광주 소원정사가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며 겨울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 스님)는 11월 27일 경내 앞마당에서 '제21회 나눔 및 제15회 연꽃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소원정사는 3500만원 상당의 쌀(1만2260kg)과 15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광주 남구·동구·북구청, 장성군청, (사)자비신행회 등 지역주민에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미스트롯 가수 배아현 씨가 1000만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 보응사 보응 스님, 광덕사 주지 동진 스님, 강진 시방사 주지 성묵 스님을 비롯해 김삼옥 자비신행회 상임이사,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전진욱 국회의원,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배아현 팬클럽 회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함께했다.

도계 스님은 "21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자비나눔을 시작했다"며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심을 가진 523명이 마음을 내어주신 덕분에 이뤄졌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생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혜민 스님 특강

세종전통문화체험관, 11월 21일
300여 명 동참…'힐링 강의' 인기



'힐링멘토' 혜민 스님이 마음을 치유하는 특강을 열어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현우 스님, 광제사 주지)은 11월 21일 관내 다목적실에서 '혜민 스님의 마음 치유 특강'을 열었다.〈사진〉 선착순으로 모집한 이날 강연은 300여 명을 넘어서며 조기 마감됐다.

혜민 스님은 대중들에게 행복해지는 '비밀'을 공유했다. 스님은 "행복해지는 방법은 '내가 이미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며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항상 뭔가를 원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마음이 멈출 때 우리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자유, 사랑, 풍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동반한 젊은 부부는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 신청했다"며 "오늘 스님 강연을 통해 '행복'을 알아가게 된 것 같아 무척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장 현우 스님은 "이번 특강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종전통체험관에서는 지역민들에게 의미 있는 특강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청계사, '천인들의 비파' 연주교육 회향

11월 16일, 수료식 · 음악회



청계사가 신중도 속 '비파'를 연주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회향했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 스님)는 11월 16일 한국 전통악기 '비파'를 배우는 '청계사 신중도 속 천인들의 합주' 프로그램을 회향하고 수료식을 거행했다.〈사진〉 이번 비파 교육은 청계사의 역사성과 국가유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가유산 문화재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생들은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신중도'를 주제로 한 곡으로 공연에 나섰다. 수료생들은 경내 설법전에서 '비파 천인들의 노래'를 연주, 고즈넉한 전통산사의 매력을 비파 선율에 담아냈다. 청계사 산하 장애인사회복지재단 녹향원 거주자들은 아름다운 비파 소리 속에서 휴식의 시간을 즐겼다.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지역주민 모두가 사찰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학적, 문화사적, 역사학적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울산 영묘사 후불탱화 점안식 봉행

11월 27일, 대웅보전서



울산 영묘사가 대웅전에 봉안된 보살상의 점안식과 호마기도를 봉행했다.

울산 영묘사(주지 용수 스님)는 11월 27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불교전통의식에 따라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상 등 다섯 보살상과 광명편조전 후불탱화 점안식을 거행했다.〈사진〉 점안식 이후에는 광명편조전에서 호마기도와 자현 스님 초청 설법회를 진행했다.

영묘사 주지 용수 스님은 "호마기도는 부처님 지혜의 불로 각자 마음속 탐진치 삼독을 태우는 기도"라며 "이를 통해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삶을 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호마기도는 액운을 방지하고 복을 증진하는 의식으로, 나쁜 재앙을 없애고 밝은 마음과 행복을 증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7~1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6	불멸(3)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이각	지혜의눈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법정스님 눈길:법정스님 결따라 사랑을 명상하다(법정스님 열반10주기)	변택주 지음	큰나무
3	그 암자에 가면 시가 보인다(불교신문시선집2)	효종 스님	불교신문사	8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4	가르침을 배우다(법의향기들) 빠알리성전을 통해 본 불교기초교리(개정판)	일창 담마간다	불방일	9	위빳사나 수행 28일	자나까비왐사/케마	한국빠알리성전협회
5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초기불전003) 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10	이 뭐꼬 이것뿐:간화선과 명상 그 절묘한 만남	월호	불광출판사

책세상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훈련



드디어 시작하는 명상 입문
신진욱 지음
불광출판사 / 1만8000원

명상은 불안한 삶의 바다를 우아한 태도로 대처하는 법
'마음의 코어 근육' 키워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삶이라는 바다에서 우아하게 서핑하기

"바깥세상은 당신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그걸 믿을 필요는 없다. 명상은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을 힘을 준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의 말이다. '불안 사회'라고도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자주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과거의 기억에 매달려 지금을 흘려보낸다. 두려움과 괴로움에서 비롯된 불안이 집착을 만들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드디어 시작하는 명상 입문〉은 마음챙김 명상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연스러운 열정과 활력, 평정심을 되찾자고 말한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고 삶의 통제권을 잡는 순간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문이 열린다. 명상은 불안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삶이라는 바다에 능숙하고 우아한 태도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마음챙김이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 늘 깨어 있는 상태로, 자신이 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충실한 방법이다. 현재의 존재에 충실한 것은 불안과는 대립하는 개념이다."
– 본문 중에서

과학적 연구로 검증하고 밝혀낸 마음 근육 키우는 운동

마음챙김 명상은 편견이나 욕구의 방해 없이 사물과 현상의 진실한 모습을 통찰하는 위빠사나 명상과, 호흡을 이용한 수행법인 사띠 명상에 뿌리를 둔다. 마음챙김 명상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불교 수행법이지만,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 대륙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관심을 얻었다. 이리저리 요동치는 마음을 잠재우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감정과 판단의 필터 없이 현실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는 마음챙김 명상은 이제 종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마음챙김 명상의 모든 것을 담은 〈드디어 시작하는 명상 입문〉의 1장과 2장은 마음챙김 명상의 소개와 함께 다양한 마음챙김 명상법을 보여준다. 3분 호흡 공간 명상, 건포도 먹기 명상, 바디 스캔, 걷기 명상 등 입문자들이 부담 없이 어디서나 꾸준히 시도할 수 있다. 3장과 4장은 우리 몸이 마음챙김 명상으로 얻는 긍정적인 변화를 연구 사례와 함께 보여준다. 마음챙김 명상은 감정과 공감을 담당하는 뇌의 중요 부위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 5장에서는 마음챙김 명상으로 괴로움의 가장 큰 원인인 감정을 다루는 법을, 마지막인 6장에서는 이 모두를 통해 생활 속에서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삶의 기술을 이야기한다.

저자의 세심하고 친절한 안내를 따라가며 명상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에서 중심을 잡을 '마음의 코어 근육'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명상은 지나간 과거를 곱씹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훈련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오직 현재일 뿐이고 명상은 그 사실을 더욱 확실히 체험할 수 있게 한다. –7p

마음챙김은 심신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명상법이다. 불교를 믿을 필요도 자신의 종교를 버려야 할 필요도 없다. 다만 그 길을 통해 관찰하고 경험하며 진실한 자기 모습에 도달할 뿐이다. –23p

우리는 깨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할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다르마(Dharma)에 깨어 있어야 한다. 다르마는 고대 인도 언어인 산스크리트어 단어이다. 우주의 진리와 법칙, 그에 대한 가르침을 뜻한다. 지혜의 다르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환상과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치는 이 순간의 실재를 자각하는 일이다. –204p

깨달음으로 이끄는 두 권의 강연집

현대인 위한 내면 성장의 길 제시
관상과 의식 지도로 내면의 평화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
데이비드 호킨스 지음 / 박찬준 옮김
판미동 / 각 1만3000원 · 1만5000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강연집 두 권이 그 답을 제시한다. 동시에 출간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과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는 호킨스의 강연을 바탕으로 현대인이 일상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깨달음의 방법들을 소개한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은 기술과 미디어 자극 속에서 저하되는 의식 수준 문제를 진단한다. 과도한 인정 욕구, 도덕적 우월감, 완벽주의 강박이 현대인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경고한다.

책은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관상'을 제안한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내면의 평정을 찾는 방법으로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복잡한 업무 중에도 잠시 멈추어 주변을 바라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상의 시작이다. 관상 외에도 감사와 유머의 태도는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는 호킨스 박사가 2003년 강연에서 전한 깨달음의 여정을 담고 있다. 인간의 의식 수준을 1부터 1000까지 척도로 수치화한 지표인 '의식 지도'를 통해 독자들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감정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호소력 있는 강연과 재치 있는 농담, 다양한 예시와 질의응답까지 담아 강연의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정현선 기자

현실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 삶도 한 단계 나아가



법상의 슬기로운 생활수행
법상 스님 지음
열림원 / 1만8000원

진짜 부처는 '자기 마음'
엉켜있는 집착의 끈 놔야

거창한 수행보다 일상에서 순간순간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행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다. 법상 스님이 펴낸 '법상의 슬기로운 생활수행'이다. 이 책은 법상 스님이 유튜브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에서 16만 여 구독자와 소통하며 강조해온 '하되 함 없이'의 핵심을 담아냈다. 특히 생활수행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삶의 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 담백하게 집중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정신세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일러준다.

현대인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생각 속에 사느라 눈앞의 진짜 삶을 놓치고 있다. 자기만의 잣대로 세상과 자신 사이에 선을 그어 분별함으로써 성취보다 포기를 자초하는 모순의 쳇바퀴를 돌고 있는 이들에게 법상 스님은 "엉켜있는 집착의 끈을 과감히 내려 놓으라"고 말한다. 스스로의 생각으로 그림 그리듯 삶을 덧칠하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 완전한 삶이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난 인생은 "눈부시게 아름답다"라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현실과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 스님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부처님을 찾아야 한다고 일깨운다. 부처님의 힘에 기대어 깨달음을 얻으려고 집착하면 나와 부처님을 둘로 나눠버린다는 점을 경계했다. 바깥에 있는 부처는 나를 깨닫게 하지 못하고, 그저 형상이라는 것이다.

법상 스님은 며칠씩 시간을 내 멀리 떠나기보다 일상에서 틈틈이 수행하길 권유한다.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단 몇 분이라도 집중하고,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치솟을 때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공부 방법에 효과적이다. 스님이 성지순례보다 우리가 머무는 이곳을 바로 '성지'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스님은 마음공부가 비본질적인 것, 진짜가 아닌 것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 "친구와 낫을 들고 풀을 베다 핏방울이 튀었는데 어디에 상처가 났는지 인식하기 전까지 친구도 나도 아픈 줄 몰랐다"는 스님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괴로움' 역시 상황에 대한 해석이자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괴로움은 그 자체로 문제가 없으며, 내 생각으로 그것을 문제 삼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선물과 같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한다. 김내영 기자

불자들이 주고받는 품격 있는 선물!

40년 전통, 불서출판의 명가 민족사에서 펴낸 경전 시리즈는 특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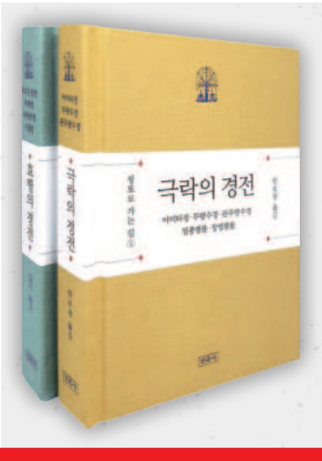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법보시야 말로 최상의 공덕입니다.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대장경 조판기술 계승, 각수 양성서 시작”

11월 28일,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대장경판 조판기술 복원’ 조명
복합 역량 갖춘 각수 양성 필수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국가유산청은 ‘대장경판의 조판기술과 인쇄문화사적 가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팔만대장경의 전통 조판기술을 복원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전문 판각 인력인 각수(刻手)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안준영 이산책판박물관장은 11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장경판의 조판기술과 인쇄문화사적 가치’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팔만대장경 조판기술의 복원과 각수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통 기술 단절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팔만대장경은 고려 고종의 명에 따라 1236년부터 16년에 걸쳐 제작된 불교 경전으로 현재 합천 해인사에 8만1258판이 보존되어 있다.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조판기술을 계승할 전문 인력의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안준영 관장은 발표에서 각수가 단순히 목판에 글자를 새기는 기능인이 아니라 판목 재질 선정, 도구 관리, 조판 디자인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도의 직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 기술이 단절될 위기에 놓인 현재, 복합적 역량을 갖춘 각수 양성은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 없이는 전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관장은 2004년 해인사에서 설립한 ‘장경도감 인경학교’를 사례로 들며 팔만대장경 조판기술 복원에 있어 전통적 교육 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장경도감 인경학교’는 전통 판각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인경의 역사적 이해와 실습을 통해 판각 기술과 인경술을 전수하고 있다. 안 관장은 “체계적인 교육과 전통적인 체계가 기술 단절을 막고 종합적인 인력 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관장은 또한 팔만대장경 조판기술을 디지털 기술과 접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조판기술 데이터화를 통해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면 전통 기술 보존이 한층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기술의 접근은 전통 기술 보존을 넘어 현대적 활용 가능성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앞서 학술대회에서는 팔만대장경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 기술의 현대적 전승 방안을 논의하는 발표들이 이어졌다. △팔만대장경 판각과 역사문화적 가치 재정립 △고려시대 대장도감과 분사대장도감 △팔만대장경의 조판과 해인사 △고려 팔만대장경의 인출과 소장처 △동아시아의 목판 현황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국가유산청이 올해부터 추진한 ‘팔만대장경 조판기술 복원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인쇄기술 현황을 확인하고 전통 목판 인쇄기술의 전승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공모전 시상

11월 27일, 불교문화사업단
37편 논문 중 총 8팀 선정



박기경 경상국립대학교 부교수가 논문 ‘템플스테이 가치가 글로벌 정체성, 환경 관심, 자아 확장 및 지역사회 반응에 대한 통합적 분석’으로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공모전’ 템플스테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찰음식 부문 대상은 김예진·정예서·윤승용 경희대 팀의 ‘언론 보도기사로 살펴본 사찰음식에 대한 주요 토픽 및 연도별 변화 분석’이 차지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이 주최하고 한국관광학회가 주관한 시상식이 11월 27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열렸다.〈사진〉

올해 논문 공모전은 총 37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8편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심사위원단은 “주제의 독창성과 연구 방법을 기준으로 심사했다”며 “작년에 비해 수준 높은 논문이 많아 공정한 평가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템플스테이 부문 최우수상은 주하정·노환수·이재현 한양대 팀의 ‘템플스테이와 인근 둘레길의 연계 활성화 전략’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윤희수·정성훈·김근현 성균관대 팀의 ‘SNS상에서의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에 대한 인식 분석’과 송만석 씨의 ‘템플스테이 의제 설정: 템플스테이에 대한 매스미디어 보도와 대중의 관심’이 각각 선정됐다.

사찰음식 부문 최우수상은 서선희·임주환·양서윤 이화여자대 팀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사찰음식의 발전 방안’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류용현·양택수·김진선 동국대학교 팀의 ‘사찰음식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과 김민지·최혜준 수원대학교 팀의 ‘사찰음식 체험과 배움의 영향’이 각각 수상했다.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이상훈 교불련 회장 연임 “입문서 집필 사업 추진”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사진〉이 차기 21대 회장직을 연임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이하 교불련)는 11월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상훈 교수를 제21대 교불련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2년간 이어진다.

이 회장은 먼저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눈높이 입문서 집필 사업을 추진한다.

또 대학별 교수불자회 창립·재창립을 위해 불자교수를 양성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불교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국불교 뿌리를 찾는 학문적 연구도 보다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내영 기자

이태원서 ‘고산사’ 흔적 발견, 복원 첫 걸음

불교사회연구소 학술 세미나
고산사, 목멱산 아래 위치 추정
‘비보사찰’로서의 역사적 역할
고산사 복원, 용산 불교의 회복



서울 용산은 과거 보광사와 고산사 같은 전통 사찰이 자리했던 불교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 있다. 과거 목멱산으로 불리던 지금의 남산 아래에 있던 고산사는 조선 초 한양을 지키기 위해 세운 ‘비보사찰’로 산과 물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난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도성 주변 십 리 안쪽의 사찰들을 없애는 ‘성저십리 정책’과 근대사를 거치며 점차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11월 22일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고산사가 목멱산 아래 이태원 골짜기에 위치했음이 확인되며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한국불교의 역사적 기능과 용산불교’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용산 지역의 불교문화유산 발굴과 복원의 중요성을 조명했다.

김천수 용산학연구센터장은 발표에서 고산사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조선 시대 문헌과 1915년 제작된 경성지형도를 분석했다. 조선 초기 문헌인 ‘용재총화’와 ‘만기요람’에 기록된 고산사 위치를 근거로 목멱산 아래 이태원 골짜기가 고산사의 터였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금위영의 산림 관리 기록과 ‘승정원일기’ ‘일성록’의 기록을 토대로 고산사가 오늘날 주한미군 용산기지 내 위수병원 부지와 인접한 이태원터에 자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김천수 센터장은 “고산사의 위치를 명확히 규명하고 복원하는 과정은 학술적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와 역사적 맥락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후속 연구와 발굴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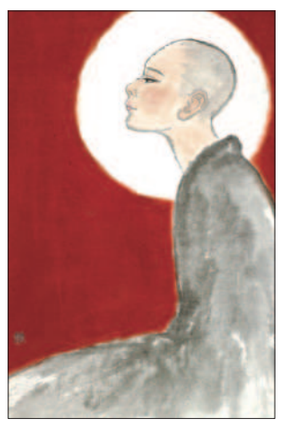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이번 세미나는 사라진 전통사찰의 복원과 불교역사문화유산 시설 건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불교의 호국, 인권, 사회 통합의 전통을 되살리고자 기획됐다”며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용산 지역 내 전통사찰 복원과 불교역사문화유산 시설 건립을 위한 학술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들은 올해 말 자료집과 논문집으로 발간돼 대중과 학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현선 기자

한국불교미술협회 제32회 협회전

12월 5일~11일, 한벽원미술관서
60여 소속 작가, 60여 작품 출품


김선희 작가의 ‘念’ 외 60여 작품이 선보인다.

불교예술의 정수를 담은 제32회 한국불교미술협회전이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서울 종로구 한벽원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각(覺)·각(各)·형(形)·상(像)2’를 주제로 깨달음을 향한 다양한 형상과 상징을 현대적 감각과 기법을 활용해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1970년 창립된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김선희)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불교미술 단체로서 지난 40여 년간 정기전과 특별전을 통해 불교미술의 대중화와 발전을 이끌어왔다. 올해 전시에는 협회 소속 작가 60여 명이 참여해 불교회화, 조각, 공예, 서예 등 약 60점의 작품을 출품하며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된 불교미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시에서는 김성렬 작가의 ‘약사여래불’, 김지원 작가의 ‘관세음보살도’, 이창민 작가의 ‘십우도’, 이또킹 작가의 ‘where is my tarb’ 등 전통 불교미술을 현대적 시각언어로 풀어낸 작품이 눈길을 끈다. 김선희 회장의 ‘념(念)’, 신주호 작가의 ‘심연’, 이혜원의 ‘목조보살입상’ 등은 각기 다른 독창적 시각으로 사유와 감상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 첫날인 12월 5일 오후 5시에는 오프닝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현선 기자



까르마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가?
까르마
‘업보’와 ‘윤회’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까르마’에 대해 인도의 학파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을 명료하게 분석하였다.
요하네스 브롱코스트 지음, 최경아 옮김/신국판/무선/212쪽/값 15,000원

불타 수행의 결정체이자 정법의 상징인 불발佛鉢!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
경전 속 묘사부터 의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발우를 둘러싼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은, 불발을 주제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저서이다.
권오민 지음/사륙배판 변형/무선/컬러/544쪽/값 35,000원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가피!
육자진언의 수행체계
‘옴마니반메훔’ 여섯 글자의 짧은 진언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염송하기가 용이하면서도 그 공덕이 커서 해탈로 이끄는 수승한 방편이다.
법장 지음/신국판/무선/324쪽/값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소아암 치료비 기부로 ‘최애’ 스타 응원”



가수 황영웅 팬클럽 ‘파라다이스’ 회원들이 소아암 환아 치료비 510만원을 후원하며 꾸준한 기부를 약속했다.



가수 최우진 팬클럽 ‘다할진’ 회원들도 70만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스타투표 리패치’ 앱을 통해 지금까지 380만원을 전달했다.

30 생명 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 ⑪

스타 응원하며 생명나눔도 실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연말을 앞두고 자신이 응원하는 스타의 팬들이 소아암으로 투병하는 어린이들의 치료비를 전달하며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펼치고 있다. 과거에는 음반을 구매하거나 현장을 따라다니며 스타에게 사랑과 응원을 표했던 이들이 이제는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최애 스타’를 응원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생긴 현상이다.

올해 첫눈이 소복하게 쌓인 11월 27일 오전,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 서울 본부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가수 황영웅 팬클럽 ‘파라다이스’ 회원들이 소아암 치료비 전달을 위해 방문한 것. 팬클럽 단체복까지 차려입고 전달식에 참석한 회원들은 박종우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이자 홍보위원장에게 510만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최근 종료된 ‘스타 리매치 뉴시즌8’ 상금으로 마련됐다. ‘스타투표 리매치’는 가수를 응원하면서 선행까지 할 수 있는 앱이다.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2’ ‘내일은 국민가수’ 등에 출연했던 가수의 팬들이 투표하고 응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한다. 팬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일정 득표수 이상이 됐을 때 시즌이 종료되고 결과에 따라 100만 표 당 10만원 씩 투표 받은 가수 이름으로 후원한다.

가수 황영웅은 뉴시즌8에서 총 5105만 3913표를 달성, 8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우승 상금 510만원을 획득했다. 지금까지 리매치를 통해 황영웅의 이름으로 전달된 기부금은 총 5310만원에 달한다.

가수 황영웅의 이름으로 ‘파라다이스’가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22일에는 ‘파라다이스 서울북부소속 황사랑방’에서 황영웅의 생일을 기념해 56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 초부터 조금씩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기부금 560만원은 ‘불타는 트롯맨 참가번호 56번’을 의미한다. 4월에는 500만원을 전달하며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연에 힘을 보탰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아름답고 공덕이 수승한 기부”라며 팬클럽 회원들을 치하했다. 일면 대종사는 “아이들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 기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것과도 같다”면서 “팬클럽 회원들이 황영웅 가수를 위하는 마음도 잘 전해져 가수가 더욱 발전하고 대중에게 사랑받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황영웅 · 최우진 팬 잇따라 본부 찾아
‘리매치 뉴시즌8’ 상금으로 마련한
기금 510만원 · 70만원 각각 전달해
시즌1부터 팬 후원금 총 2억 여원

별명인 설연으로 활동하고 있는 투표스탭은 “회원 모두가 동참해 황영웅 가수와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고 행복하다”면서 “가수를 위해 기쁘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곳에 기부의 손길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황영웅 가수의 선향 영향력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춘몽가’ ‘인생지게’로 유명새를 탄 가수 최우진 팬클럽 ‘다할진’이 본부를 찾았다. 이들은 ‘스타 리매치 뉴시즌8’에서 743만 8499표를 얻은 최우진의 이름으로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70만원을 전달했다. 가수 최우진은 지금까지 생명나눔실천본부에 380만원을 기부했다.

다할진 회원 코코샤 씨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회원 모두가 동참한 것으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오히려 더 감사하다”면서 “가수 황우진의 선한 기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신곡 ‘고리’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정동원이 40만원을 기부했다. 정동원의 누적금액은 1730만원이다. 뛰어난 재능으로 방송계를 접수하고 있는 가수 이찬원이 20만원을, ‘현역가왕2’에서 활약한 가수 김중연이 10만원, 최근 자선 콘서트 ‘오구오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가수 김희재가 10만원, 깊이 있는 목소리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 무룡이 10만원, ‘미스터트롯3’ 기대주 가수 최윤하가 10만원을 기부하며 소아암 어린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뉴시즌8에서 팬들이 전달한 후원금은 총 710만 원이다.

‘스타투표 리매치’를 통한 후원은 이현진 대표의 선한 마음에서 시작됐다. 이현진 대표는 스타트업을 시작하며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기부단체를 찾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 기사를 보고 감동을 받아 본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기부의 뜻을 전했다. 2020년 11월 트롯투표 리매치 앱 시즌1이 종료됨과 동시에 후원을 시작했다. 시즌1부터 지금까지 가수팬들이 꾸준히 전달한 후원금을 합치면 총 2억 470만원에 달한다. 이현진 대표는 기부 횟수와 금액을 매년 꾸준히 늘리고 있는 상태다.

‘스타투표 리매치’의 기부가 의미 있는 이유는 스타를 응원하는 마음을 사회를 위한 기부로 보여준다는 것과 팬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은 마음이라는 점에서다. 성별, 나이, 직업은 모두 다르지만 같은 연예인을 응원하는 마음 하나로 유대감이 형성돼 개인 차원에서는 낯설고 힘들었던 기부가 함께하니 즐겁고 뿌듯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팬들의 따스한 마음을 알고 스타도 함께 동참하면서 스타들도 직접 나서 선순환적인 기부행렬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점차 성장하고 확장돼 가는 모임·단체 기부 트렌드에 발맞춰 생명나눔도 모연 브랜드를 다양하게 넓힐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팬클럽이 나눔 문화 확산에 참여해주길 바라며 생명나눔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생명나눔 30주년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의료 취약국에 자비의 의료물품을 보냅시다”

2024년 30돌을 함께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의료 취약국에 의료물품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전합니다. 공동 캠페인에서 모연된 후원금은 의료물품 배송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세계일화 가르침 실천에 함께 해 주세요.

- 후원계좌 : 농협 053-01-271485
- 홈페이지 : www.lisa.or.kr
- 후원문의 : 02-734-8050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동국대 참사람봉사단 고맙습니다”

일면 스님, 장학금 200만원 전달
“자비 · 봉사정신 갖춘 인재 성장”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11월 20일 본부 회의실에서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참사람봉사단은 ‘참된 행동의 참된 실천을 통한 참사람 되기’를 목적으로 2013년에 결성된 동국대 참사람 사회공헌센터 산하 동아리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은 2013년 7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예방 사업 등 생명나눔운동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도 장기기증 희망등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동국대 참사람봉사단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일면 대종사는 “봉사활동은 남을 위하는 동시에 나를 위하는 선순환을 통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준다”며 “자비와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기훈 동국대 사회공헌센터 계장은 “오랜 시간 참사람봉사단 학생들을 꾸준히 지원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생명나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동국대 참사랑봉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하며 자비와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기원했다.

2024 생명나눔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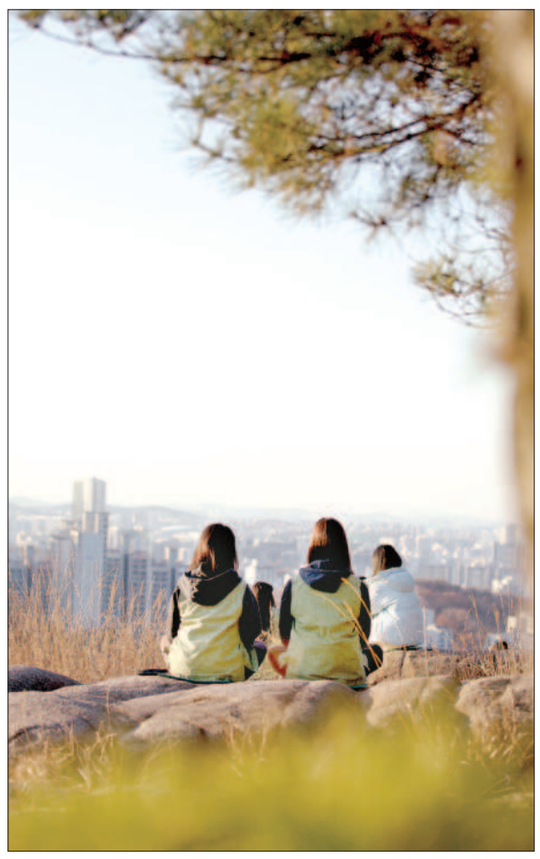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말을 맞이하여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를 진행 합니다
추운 겨울을 홀로 보내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온정을 선물해 주세요

행사내용 중랑구 저소득층 가구 동계물품 지원
후원방법 계좌후원 053-01-271485 (농협은행 / 생명나눔실천본부)
전화후원 060-703-1133 (한 통화 5,000원 기부)
문 의 02-734-8059 (총무팀)





서울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너럭바위 위에 앉아 명상을 하며 지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있다.



365일 햇살이 머무는 너럭바위에서 고요히 명상에 잠겨 있는 모습.

명상 따라 별빛 따라…도심 속 낭만 가득 템플스테이

관악 약수사, '별을 담은 우주캠핑' 템플스테이 현장

1박 2일 선명상과 별빛감상
지친 청년들에게 건네는 쉼표
서울 전경 내려다보며 선명상
잠시 멈춤이 이끄는 변화 확인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바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춤의 여유일지 모른다. 일상에 쫓겨 숨 돌릴 틈조차 없는 이들에게 잠깐 멈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치유의 순간이다. 서울 관악산 자락 신림동에 자리한 약수사는 도심 속에서 쉼과 낭만을 제공하며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분주한 서울 도심을 지나 관악산 자락을 따라 3분 남짓 걸어 오르면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고즈넉한 사찰이 모습을 드러낸다. '약이 되는 물'이라는 이름을 지닌 약수사는 현대인에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기에 적합한 쉼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20~30대 청년들 사이에서 템플스테이 명소로 주목받으며 매회 정원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다. 도심 속 작은 사찰이 어떻게 청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 걸까?

현재 약수사는 템플스테이 예비 운영사찰로 지정돼 10개월간의 평가를 마치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정식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방갈로 형태의 숙소 6개를 완공하며 최대 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젊은 참가자들이 약수사를 찾는 이유 중 하나는 도심과 가까운 접근성이다. 하지만 약수사가 주는 매력은 단순히 지리적 이점에 그치지 않는다. 주지 탄정 스님은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온다"며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퇴근 후 잠시 들려 쌓였던 괴로움의 짐을 내려놓고 가는 이들도 있다.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약수사는 짧지만 강렬한 재충전을 선사하는 공간인 셈이다.

약수사는 네 가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당일형 '나를 알아가는 소리명상'은 싱잉볼과 범종 소리에 집중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운명은 저절로, 절로 만남'은 진정성 있는 만남을 꿈꾸는 참가자들을 위한 자리다. 최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나는 절로' 프로그램이 주목받으면서 약수사의 '절로 만남' 또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걷기 명상과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는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눈을 감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과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별을 담은 우주캠핑'은 약수사의 대표 휴식형 프로그램이다.



약수사 템플스테이관 '우주선'에서 지도법사 정안 스님의 안내로 사찰 예절을 배우고 있다.



약수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중 하나인 '나를 알아가는 소리명상'에서 참가자가 싱잉볼 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열린 '별을 담은 우주캠핑'은 템플스테이관 '우주선'에서 진행됐다. 따뜻한 조명과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이곳은 전통 사찰의 엄숙함 대신 카페에 온 듯한 편안함을 준다. 금성, 목성, 천왕성 등 행성의 이름을 딴 숙소는 각자의 테라스에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수 있어 특별함을 더한다.

첫 일정은 웰컴티로 제공된 따뜻한 페퍼민트 차 한 잔으로 시작됐다. 사찰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참가자들에게 편안함과 환영의 마음을 전하려는 세심한 배려다. 참가자들은 짧은 홍보 영상을 시청하며 사찰 예절을 익히고 길잡이가 된 강아지 해탈이를 따라 산책에 나섰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와 숲의 짙은 향기가 어우러진 서울둘레길을 따라 10분 남짓 오르자 너럭바위가 드넓게 펼쳐졌다.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마음에 쌓인 무거운 짐을 가볍게 날려주는 듯했다.

"자연의 소리를 느끼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지도법사 정안 스님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매트를 깔고 앉아 각자의 내면으로 천천히 침잠했다.

명상 후 이어진 저녁 공양 시간. 된장찌개와 시금치나물, 콩잎, 두부조림 등 담백하고 깊은 맛이 담긴 사찰음식이 준비됐다. 참가자 채예슬(32, 부천) 씨는 "평소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주로 먹었는데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특별했다"며 "가장 기대했던 공양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템플스테이의 가장 특별한 일정은 밤하늘의 별빛을 감상하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별빛 아래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누군가는 책을 펼쳐 읽고, 누군가는 조용히 사색에 잠기며 각자만의 방식으로 평온함을 만끽했다. 사회학 전공의 대학생 김채원(21, 성북구) 씨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게 가끔 버거울 때가 있다"면서 "여기선 오롯이 나 자신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서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약수사의 고요한 밤은 젊은 세대에게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휴식을 선물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여정은 이튿날 스님과의 차담 시간으로 이어졌다. 부주지 보성 스님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은 계기가 때로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선명상은 바로 그 시작점이 되어준다"고 강조했다.

"스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직장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돌아가면 일상에서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 해요." 어린이집 교사 이세라(30, 인천) 씨의 말처럼 약수사는 단순한 쉼을 넘어 젊은 세대에게 삶의 변화를 이끄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평생을 경전 연구에 바친 우리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대강백(大講伯),
여천무비 스님이 펼쳐놓은 장대한 교학(敎學)의 바다!



여천무비 스님 전집
"화중연화" 봉정법회
일시 2024. 11. 23.(토) 오후 2시
장소 범어사 보제루
주최 · 주관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명심회
문의 전화 051)508-3043

여천무비스님 全集(전 25권 출간)

대중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고 버벅대는 걸음에 힘을 실어주어,
모든 이들이 환희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
정토 연화세계에 다가설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일대쾌거!

1 예불문·천수경·반야심경
2 금강경 강의
3 금강경오가해
4 지상정 강의
5 법화경 강의(상)
6 법화경 강의(중)
7 법화경 강의(하)
8 유마경 강설(상)
9 유마경 강설(하)
10 서장 강설(상)
11 서장 강설(하)
12 임제록 강설
13 직지 강설(상)
14 직지 강설(하)
15 신심명 강의·대승찬 강설
16 증도가 강의
17 전심법요 강설
18 초발심자경문 강설
19 왕복서 강설·법성게 선해
20 사람이 부처님이다·당신은 부처님
21 이와 같이 살았으면·보살계를 받는 길
22 불교 명구(상)
23 불교 명구(하)
24 무에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
25 일곱 번의 삭발인사·염화실 그림자



여천무비(如天無比) _ 1958년 불국사로 출가하여 여환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64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역경연수원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10여 년간 제방선원에서 수행하였으며 1976년 탄허 스님에게 『화엄경』을 수학하고 전법을 받았다. 통도사 강주, 범어사 강주,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동국역경원장,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부산 범어사 화엄전에 주석하고 있으며, 카페 〈염화실〉을 통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김으로써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게 한다'는 인불사상(人佛思想)을 펼치고 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임제선법이 海東으로”…석옥청공-태고보우 법맥 조명

태고종 · 후저우불교協 국제학술대회

11월 26일 中 후저우 수성사서 개최
석옥청공-태고보우 전법 의미 살펴
이종수, ‘태고법통설’ 연원 전개 고찰
“보우 종조 태고종, 임제종 전통 이어”
상진 스님 “한국불교 종조는 태고보우”

중국 후저우=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과 중국 후저우시불교협회는 11월 26일 후저우 수성사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수성사 대웅보전에서 진행된 평화기원법회 이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이종수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중국 유상 스님이 발제를 하고 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총평을 하고 있다.

태고종 종조 태고 보우 국사는 중국 절강성 후저우 천호암에서 임제 선사 18대 법손 석옥 청공 선사에게 인가를 받아 임제의 법을 고려로 전했다. 이는 불교 교류 전승의 국제적 사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한국과 중국 불교학자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석옥 청공과 태고 보우의 법맥을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상진 스님)과 중국 후저우시불교협회(회장 광천 스님)는 11월 26일 후저우 수성사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석옥 청공과 태고 보우의 법맥 전승의 의미와 한중 불교 교류 전개 등을 살폈다.

특히 이종수 순천대 교수는 ‘한국불교사에서 법맥의 전승-태고종 법맥을 중심’을 통해 ‘태고법통설’의 연원과 전개를 고찰해 눈길을 끌었다.

이종수 교수에 따르면 법통 논쟁은 임진왜란 이후 전국적으로 사찰들을 재건하는 동시에 정신적 구심점을 세우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됐다. 이는 청허 휴정(1520~1604)의 법맥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휴정은 〈삼노행록〉을 통해 자신의 스승이 부용 영관(1485~1571)이고, 영관의 스승이 벽송 지엄(1464~1534)이라 했다. 하지만 허균이 〈청허당집〉 서문에서 ‘나옹혜근법통’을 제기하면서 법통 논쟁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했던 것은 휴정의 제자 평양 언기(1581~1644)와 그 문손들이었고, 중관 해안(1567~?)도 그중 한명이었다. 해안은 〈설선의(說禪儀)〉 ‘후발(後跋)’에서 “임제 직전의 경우는 석옥 청공으로부터 청허 휴정에 이르는 8, 9위는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다”면서 ‘나옹혜근법통설’을 강하게 부정하기도 했다.

이종수 교수는 “해안의 노력은 꽤 효과를 발휘했는데, 이후 등장하는 승려들의 행장과 비문들은 하나 같이 ‘태고보우법통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며 “이는 태고보우법통설은 최종적으로 조선 후기 불교계에 공인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고 보우 법통의 공인은 조선의 선(禪)이 임제종임을 표방한 것이다. 조선의 선사들이 중국 임제종의 법통 계승을 정통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선교일치의 사상적 통합에 이어 법통의 단일화를 통한 종파의 통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조선불교는 단일 교단으로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19세기 말 서구로부터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조선불교계도 변화를 요구받았지만, 일제강점기를 맞게 됐다. 이 시기 불교 근대화의 과정에서 포교를 위한 승려의 결혼도 논의됐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는 불교 교단 분열을 가져왔고, 종조 논란으로도 이어졌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교단 분열의 과정에서 현재 조계종 측은 보조종조설을 제시했고, 이는 조선으로부터 내려온 태고보우법통설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보조종조설은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다”면서 “교화승 측은 조선 후기부터 이어진 태고보우법통설을 계승했고, 이는 태고종이 조선 후기 전통을 계승한 종단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태고 보우가 석옥 청공에게 법을 구한 것을 통해 본 한중 불교 문화 교류’를 발표한 중국 절강 설두산 자성선사 감원 유상 스님은 석옥 청공-태고보우 법맥이 가지는 문화교류사적 의미를 되짚었다.

유상 스님에 따르면 석옥 청공 선사의 선사상은 ‘불심이 곧 범심(凡心)’이라는 은일적 사상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고, 이는 태고 보우 선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유상 스님은 “태고 보우 선사는 정토종의 염불을 선종의 간화선에 결합해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며 “이는 선종 수행을 더욱 풍부하게 했으며, 한국 선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고 보우 선사와 석옥 청공 선사의 교류는 선종 법맥을 전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국 선종 문화 교류와 융합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며 “이는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한 사례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중국 선종 법맥의 전승(양유중 중국 남경대 철학과 교수) △14세기 고려 후기 불교사상과 한·중 불교문화교류 (박용진 국민대 교수) △원대 임제종의 법맥 전승 개요(구고흥 중국 길림대학 교수) △한국 선종 법맥의 전승과 문화교류(한영교 한국태고연구소 박사) 등이 발표됐다.

논문 발표 이후 이어진 총평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의 열리게 된 배경을 술회하며 태고 보우 국사 선양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상진 스님은 “지난해 10월 북경 광제사 방문 당시 구고흥 교수와 종성 스님을 만나게 됐고, 이 자리에서 석옥 청공 선사와 태고 보우 국사의 선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 과정에서 종성 스님이 학술대회를 제안해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태고종의 정체성과 저력을 확인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면서 “태고 보우 국사 선양과 율맥 조명 등 앞으로도 종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학술대회를 꾸준하게 개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보정 스님은 총평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 중국불교 법맥 전승을 중심으로 양국 불교의 발전과 동아시아 문화 속 불교가 가지는 융합성과 다양성을 보여줬다”며 “승려 전법 및 교류 관련 문헌, 비명에 대한 발표는 풍부한 초국적 문화 연구 자료를 제공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2024년 한중불교문화교류행사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원로의장 호명 스님,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중앙선관위원장 구산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불교문예원장 지허 스님, 비구니회장 현중 스님 등을 비롯한 태고종 사부대중과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본원종 총무원장 만혁 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 총무원장스님도 대거 참석했다.

중국불교 측에서는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종성 스님, 절강성불교협회장 광천 스님, 후저우시불교협회장 계룡 스님, 포수영 절강성 민족종교위원회 주임, 반우명 후저우시 통전부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과 중국 불교계는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수성사 대웅보전에서 평화기원의식을 봉행하고 보광명전에서는 학술대회 개막식을 진행했다. 기조발제에는 태고종 교육원장 재홍 스님이 ‘태고종 종조 태고 보우 국사의 정통성과 전통성의 전개’를 통해 태고 보우 국사의 생애와 법맥을 개괄적으로 조명했다.

재홍 스님은 “태고 보우 국사는 국내에서 깨우침을 이룬 후 중국으로 건너가 임제종 조사인 석옥청공의 법맥을 전승함으로써 중국 임제종맥을 계승하면서도 그에 그치지 않고, 고려선법의 주류를 형성했던 조계선법을 수용했는가 하면, 나아가서 수행과 깨침과 인가의 면모를 크게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홍 스님은 태고 보우의 법맥이 환암 혼수(1320~1392)에게로 전해졌고, 이는 다시 구곡 각운-벽계 정심-벽송 지엄-부용 영관-청허 휴정으로 계승됐음을 강조하며 “태고 보우 국사는 고려 말기 한국 선종을 부흥시킨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선종의 정통을 이어받은 임제정맥을 한국에 확립시켰다. 이후 조선시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대상승하는 선가 전통을 수립했다”고 상찬했다.

한편 상진 스님은 중국불교 측에 한국불교 전통 홍가사를 전달했으며, 중국불교 측도 상진 스님 등 태고종 주요 스님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우호를 다졌다.

대행 스님 법어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초창기 법문의 정수가 담긴 결정판
“얕은 물도 깊은 물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배가 되어라.”
마음의 길, 주인의 삶으로 이끄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
스님께서 30여 년에 걸쳐 설하신 방대한 법문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대로 담아 낸 법문집들은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무한량의 자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알음알음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경을 보되 누가 보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목마를 때 스스로
물 한 컵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한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 말씀에 담긴 깊고 간곡한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가 18,000원 / 375쪽 /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과 후저우시불교협회는 11월 27일 후저우 장흥현 천호암에서 대웅보전 개광법회를 열고 봉행했다. 사진은 태고종 어산어장스님들이 천수바라를 시연하는 모습.



태고종 방중단은 만수선사에서 향수해례 의식을 봉행하고, 선조사들을 예경했다.



불자들에게 청수를 뿌리고 있는 상진 스님.



불교 교류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태고보우 구법처 '천호암' 韓中교류 성지 '일신'

중국 후저우=신중일 기자

태고종조 태고 보우 국사가 임제 선사 제19대손 석옥 청공 선사에서 법을 인가 받은 중국 후저우시 천호암이 한중불교교류 성지로 일신할 전망이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상진 스님)과 후저우시불교협회(회장 계룡 스님)는 11월 27일 후저우 장흥현 천호암에서 대웅보전 개광법회를 열고 '조산(朝山) 예조(禮祖) 의식'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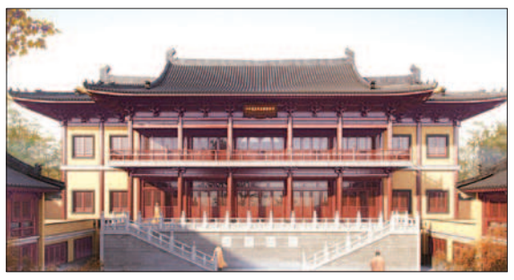
한국과 중국 불자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원로의장 호명 스님,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중앙선관위원장 구산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불교문예원장 지허 스님, 비구니회장 현중 스님 등이 참석했다.

중국불교 측에서는 절강성불교협회 부회장 자만 스님, 후저우시불교협회장 계룡 스님, 천호암 부주지 자성 스님 등이 함께 했다.

후저우 하모산에 위치한 천호암은 석옥 청공 선사가 은둔하며 수행하던 곳으로, 1347년 태고 보우 국사가 이곳을 찾아 석옥 청공 선사에게 법을 구했다. '이웅존자 시원증행장'에 따르면 태고 보우는 자신의 '태고암가'를 바쳤다. 이에 석옥 청공은 매우 놀라워하며 거량을 했고, 그의 게송을 상찬하며 깨달음을 인가하고 자신의 의발을 전했다.

'석옥 청공 선사 탑명'에도 "태고 보우라는 제자는 고려인으로 그는 스승으로부터 직접 교법을 얻었으며, 게송(태고암가)으로 깨달음을 인가받았다"고 기술돼 있다.

이들 기록은 하모산 천호암에서 석옥 청공이 계승한 임제 선법이 태고 보우에게 이어져 고려로 건너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석옥 청공 선사와 태고 보우 국사의 법연이 서려있는 천호암을 양국 불교계가 한국과 중국불교의 구법과 전승, 교류의 역사를 조명하는 성지로 조성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원루 조감도.

한국 태고종, 후저우시불교협회
중국 천호암 대웅보전 개광법회
선지식 청공·보우선사 지심 예경
불교 전승 기념처 '법원루' 기공
"韓中불교교류 새 랜드마크 기대"
청공 선사 열반처 만수선사 참배

새로 낙성한 천호암 대웅보전의 불사는 후저우시불교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태고종과의 선린 우호를 이어가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기도 하다.

이날 한중 불교계는 양국 전통 의식으로 '조산(朝山) 예조(禮祖) 의식'을 진행하고 대웅보전 낙성을 축하했다. 특히 태고종은 전통 영산작법을 통해 천호암의 발전을 기원하고 석옥 청공, 태고 보우 등 역대 조사들을 예경했다.

이와 함께 양국 불교계는 '한중불교우호교류센터(이하 법원루)' 기공·시삽식을 개최했다. 천호암 대웅보전 뒤편 부지에 건립되는 '법원루'는 1200㎡ 규모로 조성되며, 석옥 청공-태고 보우의 전법과 불교문화교류를 기념하는 전각이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고종은 후저우시불교협회에 법원루 건립 기금 5만 위안(한화 약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양측 불교계는 원활한 불교 교류 추진을 위해 양해각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태고종과 후저우시불교협회는 승려교육 및 연수, 학술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한중 양국 불교의 의미 있는 역사적 도량에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법원루의 주춧돌을 시삽하는 의식에 참석하게 돼 기쁘다. 이는 임제 선풍을 크게 떨친 석옥 청공 선사에 이어 임제 정책 제19대 태고 보우 국사의 법손으로 무한한 기쁨이며 자랑"이라고 밝혔다.

태고종 원로의장 호명 스님은 "석옥 청공·태고 보우 선사의 법맥과 가르침을 선양하기 위한 법원루 주춧돌 기공·시삽식을 한국과 중국 양국 불교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절강성불교협회 부회장 자만 스님은 "천호암은 한중 불교교류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는 고찰로 이곳에 '한중불교우호교류센터(법원루)'의 발판을 마련하는 오늘의 행사는 역사적 우정의 계승과 발양"이라며 "'법원루'가 한중 불교계의 우호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돼 양국 불교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날 오후 태고종 방중단은 후저우 도량산 만수선사를 참배했다. 만수선사는 석옥 청공 선사가 후학들을 제접하며 말년을 보낸 곳으로 이곳에서 원적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만수선사에서 태고종 방중단은 향수해례 의식을 봉행하고 일체 불보살과 역대 선조사들을 예경했다.

"中불교 교류 정례화로 종단 사업 국제화"

인터뷰 |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태고 보우, 한국불교 종조 확인
후저우시 불교계 교류 물꼬 성과
"12월 중 후속 사업들 논의 시작"



"석옥 청공·태고 보우 법맥을 조명하겠다는 생각은 태고 문도로서 오래된 생각이자 계획이었습니다. 한국불교의 종조가 태고 보우 국사임을 이번 국제학술대회와 법원루 기공식을 통해 증명돼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사진〉은 11월 25~28일 이뤄진 방중 행사의 성과를 이 같이 밝혔다.

실제 상진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초기부터 태고 보우 국사 선양을 위한 종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도 취임 초인 2023년 10월 북경 광제사에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종성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태고 보우 국사가 천호암에서 석옥 청공 선사에게 법을 인가받고 임제 선법을 고려로 가지고 온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임을 강조한 스님은 "한국불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종조가 바로 서야 한다. 바로 태고 보우 국사가 '한국불교 종조'임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진 스님은 "중국 절강성, 후저우시 모두가 태고 보우 국사와 연계된 교류행사에 관심이 많다. '태고보우원증국사비'도 후저우시 당국에서 세워주는 것으로 오늘(11월 27일) 확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태고 보우 국사 선양과 해동 율맥 조명 등 앞으로도 종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학술대회를 중국불교계와 연계해 꾸준하게 개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㉓ 전남 해남 두륜산 대흥사

▶한줄 요약
대흥사는 호국불교의 정신이 깃든 도량이다. 그리고 이후 대흥사는 조선 불교의 중심도량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13분의 훌륭한 스승인 대종사(大宗師)가 있었다. 한 분이 초의 선사(1786~1866)다. 선사는 대흥사를 우리나라 차문화의 성지로 자리 잡게 하였다.



‘구산팔해’ 넘고 올라 부처님 뵙다
〈九山八海〉

서산 대사의 가르침이 깃든 호국도량

전남 해남 대흥사(大興寺)는 두륜산(頭崙山)의 빼어난 절경 가운데 있다. 두륜산은 대둔산(大芚山)이라고도 한다. 절 이름도 원래 대둔사(大芚寺)였다. 1900년대 초 대흥사로, 도중에 다시 대둔사로, 현재는 대흥사다.

426년(백제 구이신왕7) 신라 정관 스님 창건설, 544년(신라 진흥왕5) 아도화상(阿度和尙) 창건설, 자장 스님과 도선 스님의 중건설 등이 있다. 그런데 정확한 창건 시점은 현재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응진전 앞 삼층석탑을 통일신라 말기 경에 세웠다고 추정하므로 늦어도 통일신라 말기 이전에 대흥사를 창건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창건 이후 조선 전기까지 기록은 거의 없다. 조선 후기 서산 대사의 유품을 봉안하면서부터 대흥사는 역사상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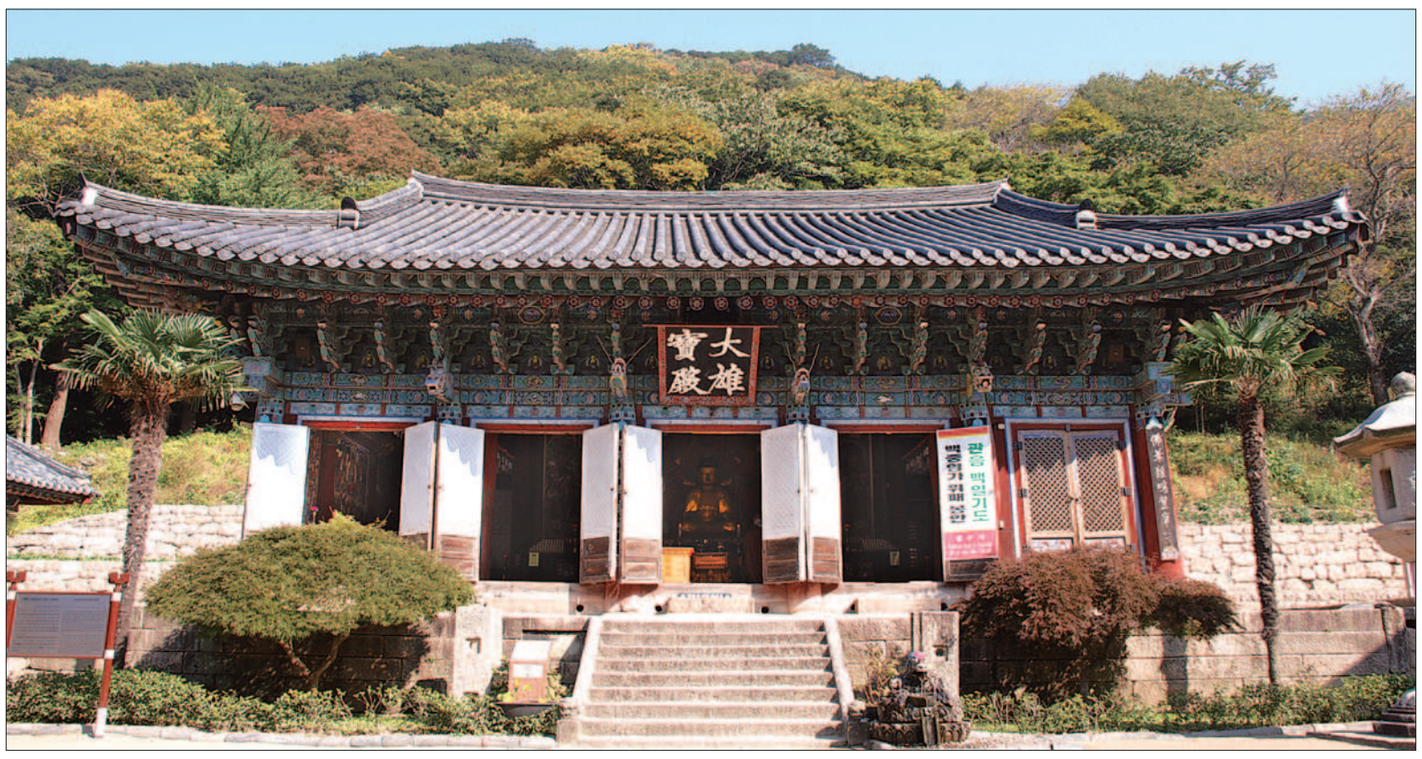
임진왜란 때, 서산 대사(1520~1604), 사명 대사(1544~1610), 처영 대사(?~?), 영규 대사(?~1592) 등 많은 스님이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앞장섰다. 해남 대흥사의 표충사(表忠祠), 밀양 표충사(表忠寺)의 표충사(表忠祠), 공주 갑사의 표충원 등에 이분들을 모시고 있다. 절에서는 흔하지 않은 유교 형식의 사당이다. 불교 문화로 보자면, 훌륭한 스님을 모신 조사전(祖師殿)에 해당한다. 이를 불교문화와 유교문화의 공존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서산 대사는 ‘해남 두륜산은 온갖 재난이 없는 곳이고, 불법을 펼칠 수 있는 곳이다. 그곳에 나의 발우와 가사를 두라’라고 유언하였다. 발우와 가사는 스님의 가르침을 상징한다. 스님이 입적하자 제자들은 사리와 영골을 묘향산 보현사와 안심사, 금강산 유점사 등에 봉안하고, 발우와 가사는 유언대로 대흥사에 모셨다. 현재 대흥사 경내 표충사에는 서산 대사를 중심으로 사명 대사와 처영 대사의 영정을 함께 모시고 있다. 금물로 쓴 表忠祠(표충사) 편액은 정조가 직접 써서 내려 준 것이다.

따라서 대흥사는 호국불교의 정신이 깃든 도량이다. 그리고 이후 대흥사는 조선 불교의 중심도량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13분의 훌륭한 스승인 대종사(大宗師)가 있었다. 한 분이 초의 선사(1786~1866)다. 선사는 대흥사를 우리나라 차문화의 성지로 자리 잡게 하였다.

여덟 개의 바다를 건너고 여덟 개의 산을 올라 부처님을 뵙다

대흥사 경내 주차장까지 차로 가는 방법도 있고, 걸어가는 방법도 있다. 도보는 다소 먼 여정이지만, 나름 여러 재미를 준다. 특히 아침 일찍 우거진 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 풍경은 영화의 한 장면이다. 사하촌에서 대흥사 해탈문까지는 여덟 개의 다리가 있다.



대흥사 대웅보전.


대흥사 천불전.

호국불교 정신 깃든 도량
초의 선사로 차 문화 성지
금색 가사 두른 불상 ‘눈길’


산능선에 나타난 부처님.

불교뿐만 아니라 고대 인도에서는, 이 세상은 아홉 개의 산과 여덟 개의 바다(九山八海)로 되어있다고 보았다. 즉 수미산을 중심으로 나이테처럼 바다와 산이 교대로 둘러싸여 있다. 마지막 바다에는 동남서북으로 네 개의 대륙이 있다. 그 대륙 중 남섬부주(南贍浮洲)에 우리가 산다. 섬부는 인도말 잠부(Jambu)의 음역이다. 즉 잠부라는 나무가 자라는 남쪽 땅이다. 염부제(閻浮提)라고도 한다. 부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지만, 수미산 정상에 계신다고 상정하여 법당에 불상(佛像)을 모셨다. 이에 불단을 수미단(須彌壇)이라 한다. 따라서 사찰을 찾는 여정은, 수미산에 계신 부처님을 뵙기 위해 남섬부주에서 시작하는 긴 여정이다.

대흥사 여정에서 건너는 여덟 개의 다리는 여덟 개의 바다를 건너는 다리다.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가는 다리다. 이렇게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듯이 가면, 두륜산에 둘러싸인 전각들이 나타난다.

대흥사 전각은, 금당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 있다. 북원에는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남원에는 천불전을 중심으로 여러 전각이 있다. 남원의 오른편에는 표충사, 성보박물관 등이 있다. 표충사 뒤편에는 대광명전이 있다.

다시 걸린 대웅보전 현판과 추사 김정희

우선 북원의 대웅보전을 참배한다. 대웅보전 현판은 원교 이광사(1705~1777)의 글씨다. 동국진체라는 서체를 완성한 분이다. 이 현판에는 추사 김정희와 얽힌 사연이 있다.

1840년(헌종 6년)에 제주도로 귀양을 가던 추사는 초의 선사를 만나러 대흥사에 들렀다. 이때 대웅보전에 걸린 이광사의 글씨를 보았다. 추사는 조선의 글을 다 망쳐놓은 자가 이광사라고 혹평하며, 그 현판을 떼고 자신의 글씨를 걸게 하였다. 그런데 8년 동안 귀양살이를 마치고 다시 대흥사를 찾은 추사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추사는 자신의 글씨를 떼어내고 절에서 보관해 둔 이광사 글씨를 다시 달게 하였다.

지금 대흥사 대웅보전 현판은 이광사의 글씨이다. 법당 왼쪽 요사채에는 추사가 쓴 ‘무량수각’ 현판이 있다. 추사가 8년 귀양살이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다른 모습을 보였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혹시 귀양살이 동안 깊은 사색으로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 ‘네가 뭘 알아’ 하는 생각 등, 〈금강경〉에서 말하는, 분별에 의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하심(下心)을 하였기 때문은 아닌지.

대흥사 대웅보전 법당문 앞에서 10시 방향으로 산 능선을 보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곳곳에 산이나 바위 모습 그대로 나투신 부처님이 있다. 산 능선에 나투신 부처님은 대흥사뿐만 아니라 영월 법흥사, 철원 심원사 등에서 친견할 수 있다.

일본에 다녀오신 천불전의 부처님들

다음 남원의 천불전으로 향한다. 필자는 대흥사 천불전이 참 좋다. 먼발치서 보면 마치 새가 날아가는 듯하다. 그리고 천불전 부처님이 일본에 다녀오신 이야기도 재미있다.

천불전은 1811년(순조 11년) 화재로 법당이 없어진 후, 완호 스님이 다시 지었다. 스님은 천불전에 모실 부처님을 쌍봉사 풍계 스님에게 의뢰하였다. 풍계 스님은 경주 불석산에 가서 6년여간 총지휘하여 옥돌로 천 불을 조성하였다. 조성된 천 불을 두 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 1817년 경주 장진포를 출발하였다. 해남 대둔사를 향하여 항해하던 도중 울산진에서 풍랑을 만났다. 배 한 척이 표류하다가 일본 나가사키현에 닿았다. 배를 발견한 일본인들은 기뻐하며 부처님을 모시고자 서둘러 절을 지었다. 그런데 일본인들 꿈에 부처님들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조선국 해남 대둔사로 가는 중이니 이곳에 있을 수 없다.’ 이를 신비롭게 여긴 일본인들은 이듬해 불상들을 해남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1818년(순조 18년) 8월에 비로소 천불전에 천 불을 봉안하였다. 일본까지 갔다가 온 부처님은 모두 768분으로, 어깨나 좌대 아래에 ‘日’(일)자가 있다.

혹 ‘日’자는 일본인들이 부처님을 보내는 아쉬운 마음에 적어두었다고 전해지지만, 〈천불전조성약기〉에 의하면, 1818년 천 불을 모실 때 적어두었다. 또 표류 과정이 자세하게 적힌 〈일본표해록〉에는 일본인이 불상을 모시고자 절을 지었다거나 꿈을 꾸었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부처님을 모신 배가 일본 항구를 지날 때마다 오색 무지개가 문처럼 나타나서 배가 무지개 중앙으로 지나갔는데, 일본인이 기이하게 여겼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천불전 부처님 모두 천으로 된 금색의 가사를 두르고 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근래에 어떤 신도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가사를 입혀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후 사찰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가사를 갈아 입혀드리고 있다.

천불전을 참배한 후 표충사, 대광명전으로 향한다. 그리고 초의 선사가 주석한 일지암,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북미륵암으로 이어진다. 긴 여정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면 대흥사는 아침 일찍, 또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찾아보길 권한다. 그리고 더 여유가 있다면, 대흥사 순례를 마친 뒤에 근처에 있는 미황사, 도솔암 등도 꼭 다녀오시길.

〈불교학자〉

“영가장애(빙의) · 신기운 장애로 고통 받는 모든 분들이
신심, 발심하여 좋은 인연 맺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여 행복해 지시길 간절히 발원드립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 해결법] 전화상담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① 빙의, 신기운 체크
일단 몸 안에 어떤 기운이 악영향을 미치는지 체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② 그 기운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지? 노력하도록 방법을 일러드리고 스스로 노력해보고 도저히 안되었을 때 개입하여 문제해결로 접근함.
③ 문제해결 방법은 몸속에 영향 미치는 기운 확인, 체크후 환자로부터 몸 밖으로 분리, 차단하여 천도시킴.
※ 대부분 효과가 없는 것은 환자로부터 분리, 차단 하지않고/ 몸 밖에서만 굿이나, 천도재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리 없음.
④ 빙의,신기운에 가장 효과적인 ‘금강경’을 독송하게 하거나, 듣게하고, 효과적인 ‘기도문’을 실행 하도록하여, 스스로 방어함과 힘을 기르게 하고 원격으로 빙의 기운을 체크, 차단시켜 드림.(최고 전문가만 가능)
⑤ 천도재 법사스님이 정법(正法)에 대한 큰 법력(法力)을 갖추어야 빙의, 신기운을 천도, 다스릴 수 있으며, 빙의, 신기운도 법사스님께나, 환자당사자, 가족에게도 감사해하고 고마워해야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 퇴마가 아닙니다. 강제적 퇴마는 좋은 방법이 아니며 또 다른 원결이됩니다!
⑥ 많은 천도 경험으로 알게된 것은 과거, 전생에 자신이 지은 악업(주로 살생업), 선대조상들께서 지은 업연(業緣), 악연(惡緣)이 그 빚갚음, 앙갚음을 위해서,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냥 오는 것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에 따라 오는것이니, 달게 받아들이고 참회하고, 금강경독송하고, 천도정성의 복을 지어 드려야, 그 고(苦)가 풀려 난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⑦ 금강경 독송 정진과 참회정진, 천도재 정성드림, 미륵존여래불 정진으로 해결 못할 난제는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좋은 인연 맺어 보십시오!
※ 증세의 경·중에 따라 경제적 부담도 고려하여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 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한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10호 | 15 | 전면광고

혀를 놀려 거짓말하지 말고,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반니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부지 : 160평
- 건평 : 150평 외
-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20억
- 위치 : 부산포교원
- 면적 : 60평실평
- 5층건물에 4층
- 전철역 출구앞
- 보2000/70만원, 권리1000만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고양시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근처) (일산역 6분거리)
- 규모 : 40평 정도(3층)
- 보증금 : 300만원 월세 40만원
- 삼존불(동불) 탱화, 불구, 집기 일체, 호신불 230불 가량 등
- 모든 시설 포함 2000만원에 넘김 시설비 조절해 드립니다. 물품, 집기만 필요하시면 가능합니다.

010-2847-6289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제주 (땅) 안내

- 전답 : 약 3천평 평당 50만원
- 팬션, 주택, 농장, 노후투자 확실 (도로접근최고) 일주도로 70m거리
- 현재 : 밀감 및 조경수 식재 300m 안에 (바닷가, 목욕탕, 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병원, 한의원, 소방서, 초 · 중학교)
- 주인직접전화

010-2104-2040

사찰(급)안내

- 동해안 (영덕)
- 임법당, 손 볼곳없는 깔끔한 도량
- 올대지 326평, 건물 40평 두채, 등기있음
- 법당 15평, 공양간 20평, 방사 5개 큰창고 2개, 목욕탕 3개, 야외화장실 2
- 노천 지장입불, 산신노천석불, 용궁
- 즉시법회 가능
- 1억 4500만원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갓바위 뒷길 근처
- 총 평수 43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7000만원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사 찰 안 내

-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 5300평 자연녹지 (현재 인법당 있음)
- 평당 10만원(가격 절충)

010-6319-8606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안 내

- 경남
- 종교부지 : 300평
- 대상사찰 : 26.6평
- 사찰부지 : 306평
- 총 : 632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6억 8000만원

010-2993-3391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 종교용지, 대지 218평 사유지 포함 500평 사용
- 주차 10대, 건평 68평
  1층 요사 42평 방 4개, 화장실 3개
  2층 대웅전 26평, 식당 2개,
  실외 화장실 1개, 산신각 6평, 난방 심야전기,
-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 집기일체 포함, 즉시법회 가능
- 시가 이하 6억 5000만원 급매 (절충가능)

010-6425-827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대출 2천만원 포함)

010-2807-050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동래구 온천3동 광혜병원옆
- 포교원 3층 약50평
- 법당 공양실 친견실스님방
- 전세 1000,월세 70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553-5001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 보증금 : 5000/월세 : 180만원 시설물 :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010-3102-5102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사등면
- 대지 : 300평, 임야 : 2700평
- 건물 : 법당 산신 용왕 요사채 넓음
- 전망 최상, 약수물
- 가액 : 2억 7500만원

010-9127-5355

사 찰 안 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 대지 : 232평 법당 요사채
- 천도재, 법회 가능
- 금액 : 13억원

010-4585-680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 대지 : 30평
- 건물 : 3동
- 법당 8평, 주지실 6평, 용왕당 3평, 공양간, CCTV 4대
- 빈몸으로 오셔도 바로 법회 가능 합니다.
- 가액 : 6000만원

010-4416-0201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종합병원 월곶,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2, 각방 2
- 보증금: 1000, 월세 15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집기시설) 5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010-8599-9468
010-4746-8827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토종꿀 선물 세트!

지친 일상 속에서 자연의 달콤함을 선물하세요

- 전통 산사의 자연 조건에서 생산된 토종꿀로 연말연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괴산의 낙영산, 보개산에서 얻은 신선한 꿀입니다.
-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대량주문협의가능)
주 문 : 043) 297-2514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510호 | 16 | 전면광고

보시는 큰 부의 문이 되며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문수사리정률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선禪갤러리 작품실

수강생 모집

탱화 불화 ⇨1년 과정 ₩400만원(주2회)
선화 [달마도 관음도 동자도] ⇨3개월 과정 ₩100만원(주2회)
＊요일과 시간(2시간) 선택 자유＊

한국전승문화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길11 (4층)
선禪갤러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20 (1층)
(02) 722-3459 (010) 4943-3459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져있다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불교의식(행사대행)

사찰의 모든 행사
원하시는대로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영산재 이수자 연암당
010-6219-4757

비구니 · 보살 구함

경남 하동 악양
전통사찰 500평
영적으로 고통받는
비구니 기도 스님 두 분 혹은
보살님 두 분 구함

010-8298-3802

포교원 안내 및 상담

- 위치 : 서울 강서구 시장옆 2층
- 30평, 보증금 없이 월 60만원
- 공양주 · 부전 · 처사 일할분 쓸분 상담
- 결혼할분 '서울 명동결혼'에서

직통 010-5381-1419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나를 닦는 백팔배 (백팔대참회문)

The Sound of Life
생명의 소리 CD

특가 12,000원

'절이란 참으로 진지하게 나를 닦는 방법입니다!'

"모든 생명을 지극히 내안에 모시고
살림의 장을 확산해 나가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108배를 올립니다"



1. 절을 하는 마음 낭송 (01:17)
2. 나를 닦는 108배 낭송과 음악 (37:39)
3. 명상음악 "영혼의 피리소리" (05:40)

연주 – 김영동 (대금, 단소, 훈)
삽입곡 – 대금독주곡(즉흥연주) 단소독주곡(즉흥연주) 영가1 – 자연의 소리 영가2 – 자연의 소리 수제천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 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동춘의 茶 이야기

㉓ 약재로 활용된 차

병치료 약재료로 사용된 茶

오랜 세월동안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 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차를 활용한 사례가 흔하다. 특히 술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적극 활용했던 시기는 대략 진(晉)나라 때부터다. 이후 수나라 문제가 두통을 치료한 것이 차였다. 이 사례는 초의 선사도 〈동다송〉에서도 언급된 것인데, 그 내용은 이렇다.

수나라 문제가 세자로 있을 때, 꿈에 귀신이 그의 골수를 바꾸더니 이로부터 머리가 아팠다. 홀연히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그가)산 속에서 자란 차로 고칠 수 있다고 하였다. 문제가 차를 복용하여 두통이 없어졌다. 이에 세상에서 비로소 차 마시는 것을 알았다.(隋文帝 微時 夢神易其腦骨 自而腦痛 忽遇一僧云 山中茗草可治 帝服之有效 於是 天下始知飮茶)

결국 수 문제는 승려의 제안으로 차로 두통을 치료하였는데, 이는 사찰에서 일부 승려들이 차를 마시며 수행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차의 이로움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수 문제는 승려의 조언에 따라 차를 마시고 병을 치료할 수 있었으니 이는 차가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검증된 것이라 하겠다. 이로부터 세상에서는 차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수나라 이전인 진(晉)나라에서도 차를 마셨다.

실제 중국 차 문화는 8세기 육우가 차의 역사를 집대성한 후 음다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그의 연구를 통해 확립된 제다와 탕법은 좋은 차를 생산,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니 이로부터 중국의 차 문화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 셈이다. 실로 중국인의 생활에 차가 빠질 수 없는 일상용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대략 8세기 말에서 9세기 무렵인데, 이런 음다(飮茶)의 확산은 육우가 새롭게 제시한 제다법이 출현하여 좋은 차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명전희(茗戰戲)에 사용할 차싹.

〈동다송〉서 두통치료 사용 확인
안구 문제·뼈마디 통증에도 탁월

한편 기운이 허해져 열이 오르는 병이 허열(虛熱)을 차로 치료하는 방법이 〈속신이기(續神異記)〉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었다.

환선무 때에 장수를 인솔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행군하면서 병이 난 후 허열이 났다. 곧 차를 마시고 다시 차를 마시게 하여 일곡 두 말을 마시자 너무 배가 불러 승합(물의 양을 재는 단위)쯤을 줄여 마셨다. 이어 부족하다 여겼지만 집이 가난하여 하루를 더 마시지 못했다. 후에 어떤 객이 차를 만들어 다시 차를 마시고 병이 나았다. 또 먼저 들으니 세상에서 이 병이 나면 바로 차 오승을 마시게 하였다. 바로 크게 토하면서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마치 승대처럼 입이 있었다. 형질은 쭈글쭈글하고 모양은 소의 배 가죽 같았다. 객이 곧 동이에 (이것을)담아 일곡 두말의 차를 붓게 하였다. 소의 뱃가죽 같은 것이 (찻물을)모두 다 흡수하고 나니 작은창자처럼 느껴졌다. 또 오승을 더 마시니 다시 모두 혼연하여 (소뱃가죽 같은 물건)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미 이것을 다 토하고 나니 허열병에 차도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이 무슨 병인가라고 물으니 대답하길 이 병을 곡이하라 부른다고 하였다.(桓宣武時,有一督將,因時行病後,虛熱,更能飮複茗,必一斛二斗乃飽,纔減升合,便以為不足,非復一日家貧。後有客造之,正遇其飮復茗,亦先聞世有此病,仍令更進五升 乃大吐,有一物出,如升大,有口,形質縮縐,狀如牛肚。客乃令置之於盆中,以一斛二斗複茗澆之,此物歙之都盡,而止覺小脹;又加五升,便悉混然從口中湧出。既吐此物,其病遂差。或問之 此何病 答云此病名斛二瘕)

곡이하(斛二瘕)란 차를 일곡 두말을 마셔야 병이 치료된다는 것이다. 곡은 10말을 의미한다. 그러니 12말의 차를 마셔야 병이 치료되는 셈이다. 윗글에 인용된 환선무는 바로 환온(312~373)을 말한다. 그는 동진의 중요한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자는 원자(元子)이다. 지금의 안휘 회원현 용항진(安徽懷遠縣龍亢鎭) 사람으로, 동진 때 주요한 군사 전문가로 권신이었다. 여러 차례 북벌(北伐)에 참여하였고, 동진의 실제 권력을 장악, 황제의 지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인물이다. 그가 북벌에서 대패한 후 그의 명성이 손상돼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후 선무라는 시호를 받았다. 위 글에서는 그가 거느린 장수 중에 행군 도중 허열병을 얻어 차로 치료한 과정이 드러났다. 이는 환온이 북벌에 참여 장수들을 독려했을 때 그의 휘하 장수 중에 허열병을 얻어 차로 치료한 과정을 드러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청대 육정찬이 편찬한 〈속다경〉의 〈서초론(瑞草論)〉에는 차의 약리를 이렇게 서술해 두었다.

차의 쓰임은 맛이 차다. 만약 열이 나거나 갈증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눈이 뻑뻑하거나 온몸이 불편하거나 마디마디가 잘 펴지지 않으면 4~5잔의 차의 마신다. 제호나 감로와 나란히 할 수 있다.(茶之爲用 味寒若熱渴 凝悶胸 目澁 四肢煩 百節不舒 聊四五啜 與醍醐甘露抗衡也)

서초(瑞草)는 상서로운 풀을 의미한다. 차는 가수(嘉樹)라고도 하며 영초(靈草)라 불렀다. 이는 차의 가치와 효능이 탁월하여 귀한 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차는 찬 성질을 지녔으니 음성 식물로 분류한다. 양은 따뜻하고 음은 차다. 이는 물질을 기질로 분류한 것이다. 차가 음성 식물이라면 차의 청미(淸味)는 차의 기질이다. 그러므로 맑고 담박한 차의 맛과 활활한 기운은 탁한 기운을 삭이고 번거로움을 몰아낼 수 있는 차의 변용인 것이다.

〈서초론〉에서 차는 열이 나거나 갈증이 날 때 눈이 뻑뻑할 때 잘 다린 차를 마시면 눈이 환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정황을 느낄 수 있다. 온몸이 뻐근하거나 모든 마디가 펴지지 않을 때도 차를 4~5잔을 거듭 마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㊻

1. 8정도(八正道)에 대한 서술로 바른 것은?

①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을 설명한 것이다.
② 내세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한 수행법이다.
③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에 입각한 열반 성취의 길이다.
④ 해탈의 길은 오직 고요한 명상 속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⑤ 몸으로 행하는 실천의 중요성은 무시되고 정신수행만을 강조하는 수행법이다.

해설 : 팔정도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 중, 고통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인 도성제의 구체적 내용들을 말한다. 팔정도는 바른 인식인 '정견', 바른 생각인 '정사유', 바른 언어인 '정어', 바른 행동인 '정업', 바른 생활인 '정명', 바른 노력인 '정정진', 바른 관찰인 '정념', 바른 집중인 '정정'의 여덟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른 인식인 정견으로 시작하여 열반을 성취하는 길을 말한다.

2. 사성제(四聖諦)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성제 : 열반에 이르는 길이며, 구체적 수행방법으로 8정도 수행을 제시함.
② 멸성제 : 모든 괴로움과 그 원인이 소멸된 상태를 말하며, 열반이나 해탈의 상태.
③ 고성제 : 인간의 현실은 절대 괴로움이 없다는 것으로 착각에 의해 괴롭다고 생각 함.
④ 사성제 : 괴로움의 모습과 그 원인을 밝히고 괴로움이 사라진 세계와 그에 이르는 길을 밝혀줌.
⑤ 집성제 : 괴로움은 우연히, 또는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무지와 집착 및 탐욕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

해설 : 인간의 현실은 괴로움임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아니라고 착각하기에 고통이 연속된다는 사실이 고통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인 고성제이다. 이 착각은 무지와 집착, 탐욕과 같은 고통의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인 집성제에 의거하여 발생한다. 즉 집성제는 고성제의 원인이며, 고성제는 집성제의 결과이다.

3. 불교는 평안에 이르는 여덟 가지의 바른 길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한다. 팔정도의 덕목 중 '자신에게도 이롭고 사회에도 유익한 바른 직업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① 정견(正見) ② 정정(正定) ③ 정명(正命)
④ 정업(正業) ⑤ 정사유(正思惟)

해설 : 정명이다. 위 팔정도의 해설에서 바른 생활은 정명이었다. 정업은 바른 행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취하는 더 많은 범위의 행동들인 몸(신)과 말(구), 그리고 뜻(의)의 삼업을 바르게 함을 말한다.

4. 인간 현실에서 부딪치는 괴로움의 모습과 원인, 그리고 괴로움이 사라진 세계와 그것에 이르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을 설명하는 초기 불교의 대표적인 교설은 ?

① 12연기 ② 사성제 ③ 12처설 ④ 오온설 ⑤ 윤회설

해설 : 사성제이다. 나머지 항목들은 사성제의 개별 항목에 속하는 것들로서 12연기는 집성제, 12처설, 오온설, 윤회설은 고성제와 집성제에 두루하는 정의이다.

5. 팔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어 - 생각을 표현할 때는 정직하고 부드러운 말로 한다.
② 정명 - 스스로 옳게 여기고, 사회에도 유익한 직업을 가진다.
③ 정업 -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과 남에게 이로운 행동을 한다.
④ 정념 - 계·정·혜 삼악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세밀하게 사유한다.
⑤ 정정 - 정신집중으로 평온하고 부드럽고 안정된 심리상태를 유지한다.

해설 : 계학, 정학, 혜학은 삼학으로 불교수행의 기본적 틀이다. 삼악은 진리를 배울 수가 없는 지옥, 아귀, 축생의 세 가지 존재양식을 말하며, 혹 삼독이라 할 때는 탐, 진, 치의 세 가지 번뇌를 가리키기도 한다.

정답 : ① ③ ② ③ ③ ④ ②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불기 2569(2025)년 을사년(乙巳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갑진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9(2025)년 을사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충청지사	010-8341-0560	유재상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⑳ 우일 스님의 '바질 페스토 스파게티'

▶한줄 요약
적당히 달궈진 팬에서 페스토를 볶다가 삶은 스파게티 면을 넣고, 면수를 더해 간을 맞춰준다. 뜨끈한 파스타 위에 특식용 치즈 가루를 넉넉히 뿌려 섞으면…. 신선한 허브의 향, 캐슈넛의 부드럽고 찰진 고소함, 치즈의 짭짤함이 더해진 이 황홀한 맛에 어찌 웃음이 나지 않을 수 있을까.



템플메이드 바질 페스토 풍미에 어른스님도 '방긋'

사람은 저마다의 재능을 타고났다.
그 능한 재능이야말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내가 해야 할 책임이며 직분이다.
– 법구경 –

우일 스님(영천 은해사)을 만나고 돌아서던 길에 떠오른 경구 한 구절이다. 타고난 재능이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기 마련이다. 봄날에 새싹이 오르고, 겨울에 눈이 내리듯이.

중력을 따라 지면에 향해가는 것처럼 마음도, 몸도 끝내 흐르고 마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다.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듯 떠오르며, 장난감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재미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재능이 제 주인인 영혼에 손을 흔드는 방식이다.

어쩌면 우일 스님의 시간은 그 오랜 친구 같은 재능과 함께 걸어온 나날인지 모른다. 출가 전에는 촉망받던 요리사로, 지금은 사찰음식과 함께 깊어가는 수행자로.

자신이 지닌 재능으로 세상을 밝히는 일만큼 멋진 일이 또 어디 있을까. 11월의 산중 칼바람도 훌쩍 날려버리는 스님의 국수. 그 향기로운 초록의 내음이 차디찬 이 겨울을 다시 덥힌다.


바질과 민트로 가득찬 사중 정원 틈새.


우일 스님은 대중에게 더 가까워질 방법을 전하고 싶다.



우일 스님의 바질 페스토 스파게티

재료 신선한 바질잎 100g ,견과류(잣, 캐슈넛, 아몬드 등) 50g, 올리브 오일 70g, 소금/후추 약간. 스파게티 면 220g, 파르메산 치즈 또는 파르마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20g, 올리브 오일 20g

만드는 법
① 신선한 바질 잎은 깨끗이 세척하고 체에 발쳐 물기를 거둔다.
② 견과류는 마른 팬에서 구워준다.
③ 바질 페스토 재료 모두 믹서기에 넣고 약간 거칠게 갈아준다
④ 냄비에 소금. 올리브 오일을 넣은 충분한 양의 물을 끓이고 스파게티 면을 8~9분 정도 삶아준 뒤 체에 밭쳐준다. (냉수로 씻지 않는다)
⑤ 팬에 올리브오일과 면을 넣고 살짝 볶아 준 뒤 면수 반 컵. 바질 페스토 1/2를 넣고 빨리 볶아서 완성한다.
⑥ 그릇에 예쁘게 담아준 뒤 치즈를 뿌려주면 완성.

우일 스님의 TIP
바질잎 대신 참나물을 사용해서 참나물 페스토를 만들어도 좋고, 잣과 견과류가 비쌀 땐 캐슈넛만 사용해도 좋아요.

소년의 꿈

"어린 시절 학교에서 장래희망을 적어내라고 하면 친구들은 대통령을 적고, 저는 매번 주방장이라고 썼어요."

연중 무료로 차와 커피 나눔을 하는 은해사의 아늑한 산사 찻집. 그곳에서 우일 스님을 만난 날, 스님의 환한 웃음과 함께 옛이야기가 피어올랐다.

"부모님께서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주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자랐지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음식을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신기할 만큼 언제나요."

출가 전, 우일 스님의 직업은 양식 전문 조리사.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길이라 생각했던 분야를 차곡차곡 배우며 성장한 시간이었다. 대학에서 조리를 전공한 뒤 대학원을 마치고,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 조리팀과 삼성 에버랜드 유통사업부를 거쳐 국제조리직업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한 촉망받던 젊은 셰프.

자신의 커리어에 하나하나 별을 달아가던 그때, 우일 스님은 '출가'라는 새로운 문을 열었다. 돌아보면 소년 시절 우연히 맺게 된 은사스님(덕조 스님/은해사 주지)과의 인연이 시작이다.

"저도, 부모님도 불교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다만 마음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누님 덕분에 지금의 은사스님을 우연히 뵙게 되었어요. 부모님 생전에는 마치 친아들처럼, 제게는 큰 형처럼 의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너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장가 못가면 머리 깎아라' 하고 농담처럼 말씀하셨는데, 30년이 흘러 정말 그렇게 된 셈입니다(웃음)."

인연의 절기

그저 등 떠밀 듯, 잔뜩 힘을 주어 종교의 길을 강요했다면 그리되었을까. 묵묵히 가족들 곁에서 의지가 되어주던 은사스님의 모습에 먼저 마음을 연 것은 바로 부모님들이었다.

"아버지는 1·4 후퇴 때 함경도에서 내려오신 피란민이셨어요. 정서적 차이로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크셨지요. 하지만 늘 한결같은 스님의 모습을 보신 후 불교에 마음을 여셨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출가의 허락. 그 말씀을 선물처럼 받아안고, 스님은 미련 없이 은사스님을 찾았다. 우일 스님의 새로운 계절이 열리던 순간이다.

사찰음식 강사로 서게 된 것 또한 '오랜 시간 쌓아온 견문이 있으니 공부를 계속하여 사찰음식 체계화에 보탬이 되라'는 은사스님의 말씀 덕분. 지금껏 배운 상식과 입맛의 기준마저 바꾸어야 했지만, 그 또한 행복이었다.

"제가 요리를 했던 것도, 출가하게 된 것도 모두 부처님이 주신 기회처럼 여겨집니다. 하나하나 인연이 고리를 맺으니 다 때가 있고, 해야 할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요. 그러니 지금은 또 제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지요(웃음)."

스님의 허브 정원

우일 스님의 요리 내공으로 더욱 즐거운 것은 역시 함께 하는 절집 식구들이다. 오늘 선보일 '바질 페스토 스파게티'는 사중의 식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별식 중의 하나. 우일 스님의 전공을 살린 이 '서양 국수'가 나오는 날이면, 어른스님도 나이 지긋한 보살님도 기대에 찬 눈빛으로 공양간에 들어서곤 하는 것이다.

스님의 스파게티 비결은 바로 직접 키운 바질로 만든 페스토(소스). 이른바 홈메이드, 아니 템플메이드 바질 페스토의 신선하고, 진한 향이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풍미를 자랑한다.

"낯선 음식이라 어른스님들께서 꺼리실 것 같지만, 의외로 스님들께선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잘 드셔요. 이걸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사중의 정원 틈새에 직접 모종을 심었습니다. 쓰임이 많은 민트, 그리고 바질은 생명력이 강하니 산중에서도 잘 살아남을 거라 믿으면서요."

한 개, 두 개 구하여 심은 모종은 이제 어느새 정원을 가득 채우고, 도량 곳곳에 푸릇한 생명력을 발산하는 중이다. 넉넉한 양이니 여름부터 가을걷이까지 수시로 갈무리해두면 오래오래 쓰임이 있다고.

어느새 스님의 후라이팬 안에서 파스타가 춤추는 시간. 적당히 달궈진 팬에서 페스토를 볶다가 삶은 스파게티 면을 넣고, 면수를 더해 간을 맞춰준다. 본래 바질 페스토에는 바질과 잣이 주재료지만, 한창 잣의 가격이 올라 캐슈넛을 갈아 대체해 주었다.

자, 이제 뜨끈한 파스타 위에 특식용 치즈 가루를 넉넉히 뿌려 섞으면….

신선한 허브의 향, 캐슈넛의 부드럽고 찰진 고소함, 치즈의 짭짤함이 더해진 이 황홀한 맛에 어찌 웃음이 나지 않을 수 있을까. 저 먼 이국의 국수가 우리네 산사에서 다시 '승소'로 피어나는 순간이다.

스님의 꿈

"이렇게 스파게티를 낼 땐 주로 수프를 함께 내요. 평범한 시판 수프라도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를 푹 익혀 넣으면 맛과 영양을 더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은 수프를 드신 노보살님들께서 그러세요. 처음 보는 미음이 구수한 게 아주 맛있었다고, 또 만들어 달라고요(웃음)."

우일 스님은 내년 3월부터 서울에서 본격적인 사찰음식 강의를 시작한다. 강의에 집중하기 위해 잠시 사찰의 소임을 내려놓은 요즘.

새벽 예불을 마치고 부처님께 인사를 올린 뒤 가만히 앉아 숨을 들이마신다. 우일 스님은 겨울 공기만이 줄 수 있는 그 상쾌함을 사랑한다.

"저는 아직도 음식이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웃음). 맛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저의 숙제이지요. 꾸준히 배우고, 수행하는 것만이 답일 겁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길을 찾을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전국의 사찰음식들도 모두 기록하고 싶습니다. 진입 장벽을 낮춘 레시피로 대중들이 사찰음식과 더 가까워질 방법도 전하고 싶고요. 언젠가는 그렇게 제 몫을 해낼 때가 오지 않을까요."

환히 웃음 짓는 스님에게서 꿈꾸는 이의 힘을 본다. 제 몸을 다해 맑은 향기 내는 저 새 풀 같은 푸른 힘. 그러니 멀리, 아주 먼 어느 곳까지 퍼져나가 세상을 밝히기를.

〈작가〉





대행 스님

내가 공해서 없는데 고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느냐

오늘 점안식을 하고 여러분과 이렇게 한자리 하게 되었습니다. 창건주 되시는 윤 선생님께서 불심이 강하고 또 마음의 불씨가 너그러우셔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설법을 한다기보다는 부처님의 진정한 뜻을 알기 위해 모르는 것은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부처님을 참되게 모시고 이렇게 점안식을 거행했는데, 여러분이 부처님을 모셨다고 해서 그 모습을 딴 몸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있기에, 또 마음이 있기에 그 마음으로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없다면 마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사륜 소생이 아니라면 우리 몸속에 사생이 들어 있지 않고, 사생이 들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움죽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셔 놓으면 우리 마음에 부처님을 모셔 놨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한마음이 있고, 한생각을 일으킬 수 있고, 한생각 일으킨 그 자체가 결정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는 뜻을 확신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이는 만날 저런 말만 해!'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항상 끄달리니까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이 뜻을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편리하게, 살림살이 그대로가 부처님의 법이며 부처님 법이 우리들의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끄달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저 부처님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님으로써 마음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닙니다.

어떤 거든지 생명 없는 게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하다못해 이런 법상도 움죽거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어떠한 거든지 살아 있지 않은 것이 없고 돌아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찰나찰나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륜이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수십억 마리가 지금 꿈틀거리면서, 은하계의 별성이 돌아가듯 우리 몸뚱이 속에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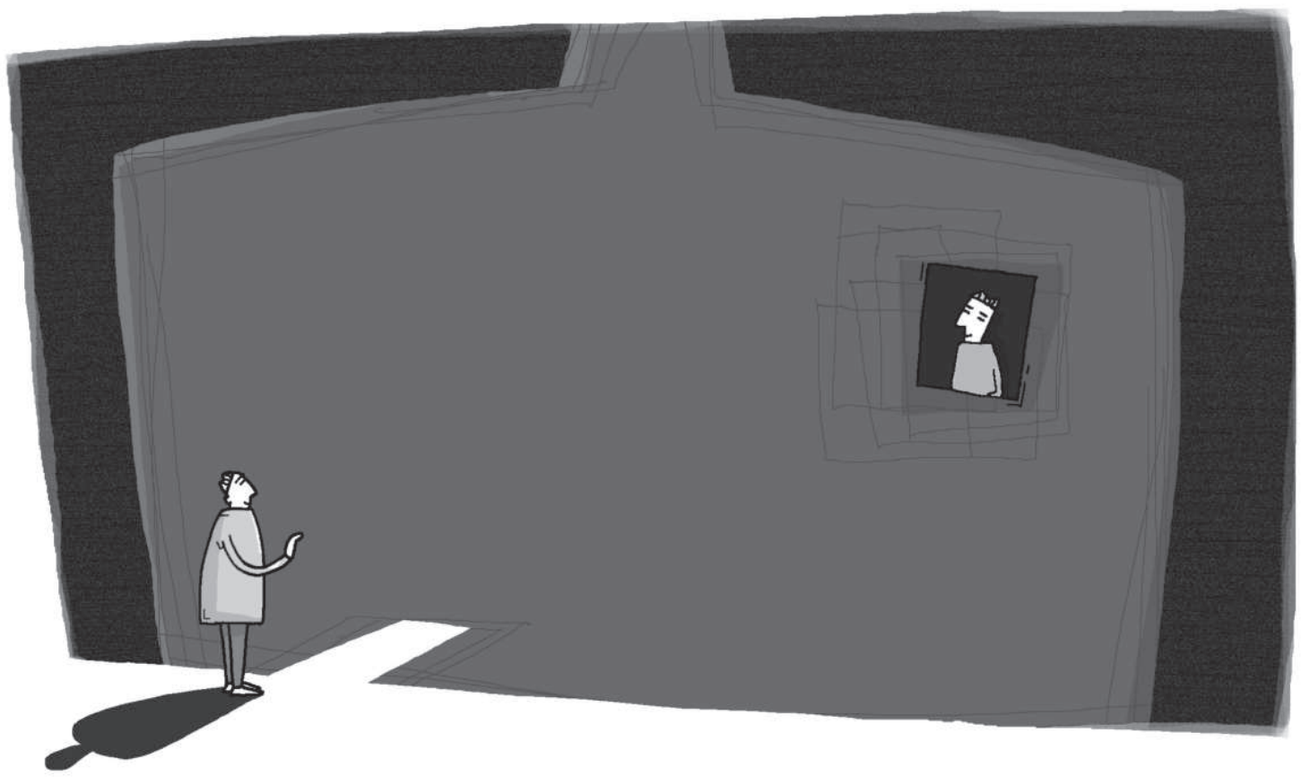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한생각을 잘못 낸다면 이 동네가 망합니다. 이 몸도 한 집이자 한 동네이자 한 우주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벌써 이 세상에 나와서 우주가 있다는 걸 알고 지구가 있다는 걸 알고,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부처님이 49년 설해 주신 걸 알고,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세상을 알고 있는데 어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없겠습니까. 우주보다 내 마음이 더 크다고 봐야 옳겠습니다. 크다기보다는, 작다고 할 수도 없고 크다고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너무도 광대무변하니 여러분은 마음을 좁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저께도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말이에요, 집들이 전부 성냥갑 같고 쓰레기통 같아요. 쓰레기장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내고 보수를 하고 그러는 걸 가만히 볼 때, 개미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면 그 콩나물시루의 콩나물 하나와 같은 내 몸뚱이가 '나만의 나'인 것입니까? 내 몸이 공하고 내 사생이 다 공해서 모두가, 사대 오온이 다 공해서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의에 끄달리거나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거나 이런다면 어떻게 나를 내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좁다면 고독하고 편안치 못하고 끄달리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부처님 모셨다는 걸 알듯이 그렇게 하나를 알면 열 가지 백 가지 천 가지, 끝 간 데 없이 알 수 있어요. 부처님을 모셔 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아침마다 무슨 주문을 외우고 염불을 하고 또 삼천 배를 하고 백팔 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한생각만 잘하면, 한 번 손을 합장하고 한 번만 마음을 잘 먹으면 삼천 배를 할 수도 있고 삼만 배를 할 수도 있고, 우주 전체를 들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굴릴 수도 있건만 어째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도 그렇게 복잡하게 갖습니까?

바깥으로 찾다 보니 이름 찾아야지, 또 일일이 높은 사람 찾아야지 낮은 사람 찾아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눈 따로 찾고 귀 따로 찾고, 코 따로 찾고 입 따로 찾고, 바른팔 왼팔 모든 걸 따로따로 찾는 격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여러분 각각이라면 그 헤아릴 수 없는 수효대로 그걸 곳곳이 찾아야 하니 그걸 어떻게 다 찾습니까? 그러니 그냥 '머리' 하면 전체가 들어가지만 '머리카락' 해 보십시오, 헤아릴 수가 있나. 마음은 하나지만 마음 내는 거는 천차만별로 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의 잠재의식 카세트로부터 그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얽히고설킨 그 자체가 바로 각본대로 나오는데, 그 나오는 대로 거기에다 그저 맡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담아지면 없어지고 없어지면 채워지면서 우리 지금 실생활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실 때에도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습니다. 현실의 여러분은 잠재의식 카세트를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게 바로 종 문서예요. 종 문서를 짊어지고 나오셨으면 그 종 문서를 태워 버려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스럽게 살아야죠. 여러분이 먹고 싸고 잠자고 가고 오고, 이것이 그대로 자연스럽고 그대로 법이에요.

여러분은 '고가 있다' 또 '업보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얼마나 죄가 많기에 이런가' 하시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죄인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무한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끝 간 데 없는 그 법의, 바로 법음과 더불어 자력, 광력, 전력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수만 가지로 닥치는 것을 못이나 쇠 부스러기에 비유한다면, 자석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는 대로 자석이 돼 버리고 마는 그런 형국이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하신다면, 그대로 시대를 잘 검토한다면 그대로 견성이에요. 여러분은 너무 고집하고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 업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 내가 공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두를 또 들어야만 한다고 하니까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내가 공했는데 들고 있을 건 뭐 있습니까?

내 나무에서 내 실과를 무르익혀야 제 맛이 나고, 바로 내 나무 속에서 생산처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수만 가지 생산을 해낼 수 있고, 수만 가지 생산을 해낼 수 있다면 수만 가지 맛을 낼 수가 있는, 그러한 생산처가 되어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 한행을 하는 이 생활이 바로 부처님 법!

☞ 19면에서 계속

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한 번 실행을 해 보기보다는 부처님이 바깥에 있는 줄 알고 마음으로써 항상 끄달린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노스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 노스님이 몸이 약해지고 너무나 들피가 나서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더랍니다. 그런데 한 제자는 계율을 지켜야 한다고 바둥바둥하고, 한 제자는 '내가 계율을 못 지켜서 만약에 벌레가 된다 하더라도 스님은 살려야겠다.' 하고 가서 지렁이를 캤습니다. 지렁이를 캐고 캐서 말갛게 씻어서 폭폭 고아서는 그걸 꼭 짜서 스님을 봉양을 했더니 스님이 건강하게 일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모든 것을 자기한테 그냥 놔 버렸습니다. 자기가 죽든 살든 어떻게 되든 그걸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무의법으로써 유의 법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행할 수 있는, 영체와 유체를 따로 보지 않고 같이 합쳐서 중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올바른 계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질로만 계율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물질 본위로만 나가야겠습니까?

사람사람이 마음 하나를 잘 먹어서 세상을 올바르게 해 놓을 수도 있고 마음을 잘못 먹어서 세상을 올바르지 못하게 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내 몸으로부터 '나'를 이끌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을, 내 집을 망가뜨리는 이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있고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라는 것이 부처라면, 바로 부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지 어째서 따로따로 있겠습니까? 상구보리 하면 하화중생이고 하화중생 하면 상구보리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한생각에 의해 바로 몸속에 있는 그 생명체, 모습들이 다 한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넓고 건강하게 쓰면 바로 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중생들도 다 같이 건져집니다. 내 한 생각을 잘하면 수십억 마리가 그냥 건져지지만 내 한 생각을 잘못하면 수십억 마리가 건져지지 못하는 거죠. 깨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수천 알의 깨가 되듯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생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알로 나거나 태로 나거나 습한 데서 나거나 화해서 나는 것이 다 내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나 외부나, 사생은 항상 지수화풍으로 뭉쳐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죄가 많고 왜 그렇게 못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중생이 돼서 못 한다구요? 중생이라고 자기가 이름 지어 놓고 자기가 중생 노릇을 하는 거지, 누가 중생 노릇을 하랬나요? 부처 노릇을 하랬나요?

옛날에도 그런 점이 있었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라, 고려 때는 불교문화가 발전이 되었었는데 조선에 이르고부터 불도를 배척했습니다. 불도를 배척한 것이 불자를 배척한 것이고, 불자를 배척한 게 자기 마음을 배척한 겁니다. 자기 마음을 배척하고야 어찌…. 물질 본위로 살면서 항상 쫓고 쫓기고, 낮은 놈은 찌들리고 높은 놈은 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가 역사다웠습니까, 어디?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가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부처님을 모셔 놓은 법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누가 가는 걸 보면 붙들어다가 볼기를 때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뺏고 부수고…. 보고 듣는 게 이런 거였으니 이렇게 해 가지고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숭상하고 계발하고 물리가 트이게 해서, 즉 물질과학과 정신과학을 한데 합쳐서 우리 역사를 이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마음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요새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뒤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뛰는 거 있죠? 요새도 가만히 보면 위태위태합니다. 왜 위태위태한가? 사람이 첫째, 세계를 보면서 우리 분단된 반쪽 조국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둘째는 요새 이렇게 모두 날뛰고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면 그 사상이 어떤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정해서 찍으면 그뿐인 것을, 그렇지 않아도 분단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를 왜 부수고 때리고 난동을 부리느냐 말입니다.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찍으면 되지 도대체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누구 손해냐 이겁니다, 네?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하는 노릇입니까? 이게 지식층들이 하는 얘깁니까, 어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향내가 나고 발 한 번 한 번 떼 놓는 그 움죽거림이 모두 향내가 나야죠. 그런데 얼마나 몰상식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민주화 민주화" 이렇게 말로만 합니까?

"스님은 어째서 정치 얘기를 합니까?" 이러시겠지만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한자리입니다, 부처님 자리고. 세계적으로 보거나 우주적으로 보거나 생명 없는 게 없어요. 생명 빼놓고 마음 빼놓은 게 어딨어요? 그러니 전체가 부처님 자리죠. 그러니 말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중이라고 왜 할 말을 못 해요? 중은 목탁만 두들겨야 중인가? 여러분과 다 같이, 우리가 일요일에는 쉬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생각을 내서 일을 나갑니다. 화요일에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 한행을 하고 있는 이 생활이 바로 부처님 법이에요. 그런데 말할 게 없어요?

월남전 때 어떤 사람이 월남에 싸우러 갔는데 편지를 보냈어요. "스님, 여기 와서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무기들을 이 지역 사람들에게 나눠 주면 이튿날이면 그 무기들이 다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는지를 검토해 보니까 그냥 전부 저쪽에 갖다 주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싸우는 겁니까? 이건 역성을 들어 줘도 한계가 있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돌아서야 될 지경입니다. 그러니 스님, 전 인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죽는 걸 가리지 않으니까 그저 지뢰도 밟지 않고 그냥 그 사이 사이로 통과했고, 거기를 넘어갔다 왔는데도 모가지 안 잘리고 살아왔습니다. 아주 죽을 각오 하고 머리카락 베어 놓고 손톱 잘라 놓고선 그냥 악수하고 울면서 헤어졌는데, 이렇게 와서 싸우다 보니까 외려 몸을 아끼는 사람은 죽고, 그냥 이때 죽으나 저때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저는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각오를 하니까 오히려 죽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합디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 가운데서 내 마음을 발견할 수 있나?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 필연적으로 이것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른다면, 육체를 가지고 이 도리를 모른다면 거듭거듭 이런 고난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죽는 것이 열반이 아니죠. 육체를 살려 놓고 저승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승 저승이 없이 회전을 할 수 있어야만 그걸 이름해서 열반경지라고 그럽니다.

고집멸도의 사제법 중에서 고가 고인 줄 아시지 마세요. 여러분은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이렇게 인간으로까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 그 습이 많기 때문에 수없이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한데 모인 거거든요, 수십억 마리가 인연 따라서. 사생이 인연 따라서 여기 다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인연 따라서 온 나 자체의 그 마음이 꽁지에 꽁지를 물고 자꾸 나오는 걸 나오는 데에다가 다시 놓는다면 좋은데, 고가 고인 줄 안단 말입니다. 내가 공해서 없는데 고라는 것이 어디에 붙을 자리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건 뭐냐.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수행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고가 고가 아니죠.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진화시킬 수 있고 성숙시킬 수 있고 나를 해탈시킬 수 있는 과정이 고란 말입니다. 그러면 고가 고가 아니고 그게 수련 과정이요 수행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내가 그렇게 다지고 다지면서 수행을 시키니 이 감사함을 어쩌나.'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고가 없으니 집도 없죠? 집착도 없을 거란 말입니다, 고가 없으니까. 모두 놓고 돌아가니까. 집착이 없는데 멸이 어디 있습니까? 멸이 없는데 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니 내가 나를 믿지 않고는 안 되죠.

여러분은 지금 한 군데만 움죽거리지 않게 해도, (다리를 짚으시며) 여기를 한 치만 뻣뻣하게 해도 걸음을 못 걸을 겁니다. 그렇게 움죽거려 주는 내 속의 내 중생, 이 자체가 소중한 줄 알아야 여러분은 성한 다리로 성한 몸으로 다니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몸뚱이 속의 생명체들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한 마음 한 몸이지 두 몸이 아니에요. 그 수십억 마리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 거기에서 다 들이고 내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잘되는 것도 감사하고 안되는 것도, 고가 고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공부입니다, 인제. 말을 하자면 그때부터 이승 저승을 마음대로 회전하면서, 왕래하면서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체험하면서 숙달시키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두, 당장 앞에 닥치기만 하면 그저 팔자 타령을 합니다. 애들이 공부를 안 해도 "아이고, 내 팔자야!" 또 남편이 속을 좀 썩여도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래?" 몸이 조금만 아파도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러냐." 이러거든요. 아니, 그건 자기 생각이지 부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향내가 나고
> 발 한 번 한 번 떼 놓는
> 그 움죽거림이 모두 향내가 나야죠.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7년 12월 13일 국내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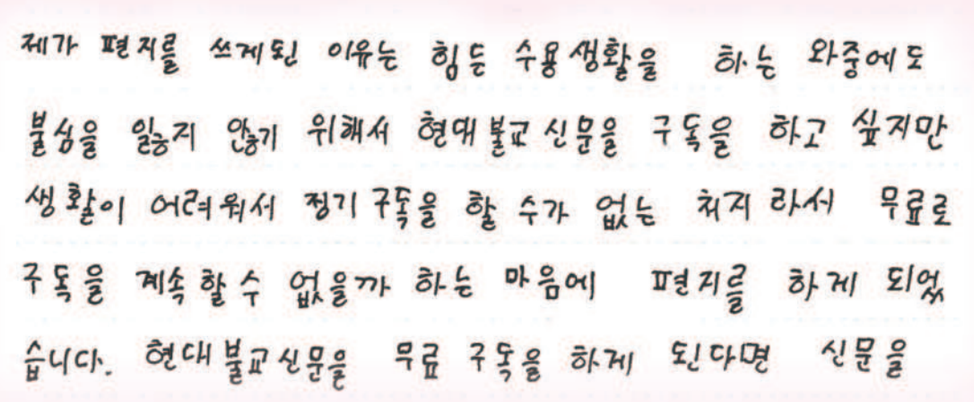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㉓ 내 안의 우울을 어루만지며 마음의 문을 열자

내 마음 마주할 때 진정한 자유 다가선다

요즘 법회에서는 매주 20대들과의 만남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맞닥뜨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고자 마음을 내고 자신의 시간을 낼 줄 아는 멋진 청년들과의 만남이 즐겁다.

내가 법회를 만났던 바로 그 나이 스물넷. 그들과 법당에 앉아 있다 보면 법회 문을 두드리고 법당에서 절하고 법문 듣던 스물넷의 내가 떠오른다. 얼마나 해야 할 게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20대인가? 요즘 20대는 높아진 등록금과 생활비로 인해 학업과 아르바이트 사이에서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다.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시간을 내서 법당을 찾아와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면 그들의 삶에 대한 사랑과 내적 성장에 대한 열망을 보게 된다.

친한 친구에게 말하기 어렵고, 부모님께는 걱정 끼칠까 봐 더더욱 입을 열기 어려운 문제들로 고민되는 것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위로가 된다. 문사수법회 법사로서의 만남 이전에 〈나를 살리는 마음훈련법〉의 저자 김영애, SNS상에서의 '무상무아'로 몇 년간 소통해온 인연이, 지금에 와서 싹을 틔우는 듯하다.

이 세상을 안심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공유하고 싶어서 불교와의 만남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편안한 신앙에세이를 기획하고 쓴 책인데, 다행히도 책을 통해 40대의 주부들과 20대의 청년들과의 만남이 늘어가고 있다. 책과의 만남을 통해 부처님과 법회와의 만남으로 인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쁜 나날이다.

오전에 와서 함께 사시예불을 모시고 늦은 밤까지 대화하고 공부하다가 가는 친구들도 있고, 카페 알바를 마치고 저녁에 와서 늦은 밤까지 고민을 나누다 가는 대학생 친구도 있다. 행신역 바로 앞에 법회가 있다 보니, 어제는 간호사 일을 하는 친구가 퇴근하고 와서 요즘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상대의 기준에 맞추느라 자신을 너무 억누르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살면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거 같아요. 공부나 일은 제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바꿔볼 방법이 있는데 사람 간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거 같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너무 상처를 잘 받으니까 자기방어를 하는 거 같아요. 서운해서 기분이 나빠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표현을 못 해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함으로써 상대와 불편해지는 걸 아예 시도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신경 꺼야지'하고 스위치를 내려버려요. 스위치를 내려도 신경이 안 꺼지면, 신경 끌 수 있는 감정선까지 물을 다 퍼내는 기분이랄까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될 때까지 감정을 소모해버리고 그래도 안 되면 마음을 접고 관계를 단절해버려요."

'내가 만든 감옥'은 아상서 비롯
괴로움 원인 소멸하는 정진 필요

그녀는 상대에게 맞추느라 표현하지 않고 체념하고 마음 한편에 치워두면서 꾹꾹 눌러두는 습관이 만성화되어 자신이 힘든 것조차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았다.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내 쪽에서 이미 단정을 내리고 있으면 대화를 안 하게 되어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아예 차단되는 게 아닌지 돌아보도록 여지를 주었다.

하심(下心)이 자연스레 되고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그릇이 커서 상대에게 저절로 맞춰지는 게 아니었기에 염려가 되어, 내면에 억누르고 있는 화나 분노는 없는지 물었다.

"엄청 억눌러져 있어요. 툭 치면 눈물이 쏟아져요. 한번 울기 시작하면 엄청 울고요. 마치 물이 가득찬 그릇에 감정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느낌이랄까요? 저도 저를 잘 모르겠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디에 뭐가 그렇게 쌓여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임시방편으로 몸을 움직이면 좀 잊어버리는 거 같아서 자꾸 일을 만들고 바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혼자 있게 되어 사색하거나 여유가 생기면 우울해져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은 편이었는데, 친한 친구가 '이번 시험에선 너만 이기면 돼'라고 했을 때 친구와 부딪히기가 싫어서 부러 시험을 못 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왜 타인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하고 감수하며 억누르게 될까? 착한 사람 콤플렉스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게다가 저는 많은 징크스를 갖고 있어요. 지금 행복한 만큼 미래가 불행해질 거라는 징크스. 그래서 나쁜 감정이 올라올 때면 미래의 불행을 막기 위해 지금의 행복을 한 스푼 덜어놓는다고 생각하고 참아버려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말을 걸면 관계가 깨지고, 상대가 먼저 말을 걸어오면 좋은 관계가 될 거라는 징크스도 있어서, 친해지고 싶어도 먼저 말을 걸지 못해요."

스스로 힘겨움을 감내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그녀가 안쓰럽고 대견했다. 오래된 우울감에서 그녀가 자유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내가 튼튼할 때 남도 잘 돌볼 수 있는 것이니, 앞으로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체념하고 억눌러놨다가 나중에 터뜨리며 단절시켜버리기보다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하며 읽어주고 받아주며 수용해보길 권했다.

그리고 '징크스'라고 하는 '내가 만든 감옥'에서 스스로 갇혀 옴짝달싹 못 하는 어리석음은 모두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아상(我相)에서 비롯되니,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해가는 공부와 정진을 통해 나와 남이 함께 살려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고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나무아미타불!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㉙ 무릎 연골

무릎 건강 위해선 '연골' 알아야

무릎 관절에는 다양한 구조물들이 존재하며, 그중에서도 반월상연골판(meniscus)과 골연골(cartilage)은 무릎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두 구조물 모두 '연골'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두 구조물의 차이를 명확히 알면 무릎 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월상연골판과 골연골, 어떻게 다를까?

1. 반월상연골판(meniscus)

반월상연골판은 허벅지뼈(대퇴골)와 정강이뼈(경골) 사이에 위치한 초승달 모양의 구조물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뉘며, 무릎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 골연골(cartilage)

골연골은 뼈의 끝부분을 덮고 있는 매끄러운 물질로, 관절의 마찰을 줄이고 뼈끼리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합니다. 관절이 원활히 움직이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손상될 경우 관절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외상성 손상의 차이

1. 퇴행성 관절염

반복적인 사용이나 나이에 따른 변화로 인해 반월상연골판과 골연골이 점차 닳아 손상되면서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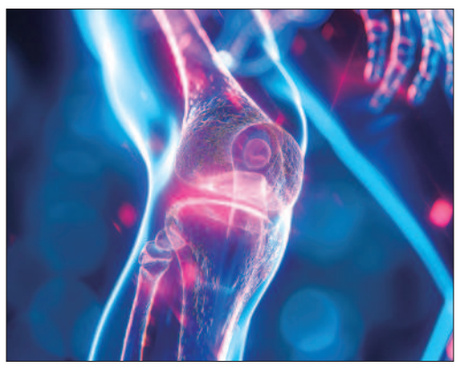
• 병변이 무릎 관절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광범위한 변화(diffuse change)가 특징입니다.

• 통증, 부종, 관절 강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2. 외상성 손상

스포츠 활동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며, 특정 부위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월상연골판이 찢어지거나 골연골이 손상될 수 있으며, 십자인대 손상과 같은 다른 부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 '연골'
손상시 무릎 관절 영향 '막대'

• 적절한 치료를 통해 관절 기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보존적 치료로 관리 가능

퇴행성 관절염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아닙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관리와 적절한 운동(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심하지 않은 초기 관절염의 경우, 골연골 손상이 국소적이고 반월상연골판이 건강하다면 골연골재생술(미세천공술, 세포주입연골재생술 등)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변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경우 절골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상성 손상 치료, 국소적 문제에 초점

외상성 손상은 국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반월상연골판 봉합술 : 찢어진 반월상연골판을 가능한 한 보존하며 봉합합니다.

• 골연골 재생술 : 미세천공술이나 자가 연골이식술을 통해 손상된 골연골을 복원합니다.

• 동반된 인대 손상이 있다면 십자인대 재건술 등을 함께 시행합니다.

반월상연골판과 골연골, 둘 다 중요하지만 다릅니다.

반월상연골판은 무릎 관절의 안정성과 충격 흡수를 책임지는 구조물이며, 골연골은 관절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돕는 매끄러운 보호막입니다. 이 두 구조물이 손상되면 무릎 관절에 큰 영향을 미치며, 퇴행성 관절염과 외상성 손상 등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두 구조물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며, 국소적인 손상은 봉합술이나 재생술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무릎 관절의 구조와 기능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면, 더 건강하고 오래도록 관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도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불교TV 영상포교 30년

BTN불교TV는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청년포교를 위해
부처님 말씀과 대덕스님들의 귀한 법문을 전 세계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앞서 뛰겠습니다.
아직 BTN 붓다회 회원이 아니시라면 지금 당장 가입하시어
BTN불교TV를 응원해 주십시오.
BTN붓다회 회원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특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입문의 1855-0108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전법 일기

'전법포교'라는 수행의 길 내려놓으니 비로소 보였다

안양에 포교당을 개원한 지 5년이 지났다. 스님들이 포교당을 개원할 때 많은 포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뜻대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 개원하자마자 코로나19가 시작되었으니 말이다. 더불어 전국비구니회에 국제부 국장 소임도 제안 받게 되었다. 비상근직이긴 해도 포교당 운영엔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제안이었다.

고민 끝에 선배스님께 여쭈었다. 대답이 걸작이었다.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붙잡지 마라." "다가오는 인연이 있다면 받아들여라. 다 이유가 있다."

선배스님 말씀에 두 말 않고 받아들였다. 소임도 시대도 받아들이고 나니 진짜 할 일이 보였다.

코로나19로 큰 사찰들이 산문을 닫을 때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며 열심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신도들이 하나 둘씩 늘었고 온라인으로 중계도 하다 보니 많진 않아도 전국의 불자들이 함께 했다. 더불어 처음 시작하는 절이라 전국비구니회 소임자 스님들이 가지가지 애로사항들을 많이 도와 주셨다.

제12대 비구니회장이셨던 본각 스님부터 현재 제13대 회장이신 광용 스님(당시 부회장), 그 외 부장, 국장스님들이 정신·물질적으로 함께 해주셨다. 스님들께서 애쓴다며 밑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셨던 그 마음이 필자의 마음에 따뜻하게 자리 잡아 포교에 싹을 틔워줬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 포교란 이런 것이구나. 주변을 잘 살피는 것….' 그리고 이것이 기도하는 마음임을 알게 됐다.

사찰이 안양교도소와 가깝다보니 자연스레 포교도 교정교화와 연결되었다. 정심중고등학교인 소녀 보호감찰시설에 한 달에 한 번 법회를 보러 간다. 코로나 펜데믹 당시에는 5~7명이었던 학생들이 현재는 25명 정도로 늘었다. 재소자도 늘었지만 불교 법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달라진 눈빛과 미소에 같이 봉사하던 스님들과 봉사자 선생님들도 신이 났다.

그러던 재작년 이맘때 쯤, 선배스님께서 피부암 진단을 받으셨다. 갑작스런 수술과 요양을 위해 당신이 맡고 계셨던 성신여대 대학생 법사 소임을 부탁하셨다. 처음 접해본 소임이었지만 왠지 자신이 있었다. 이젠 그 노하우를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선배스님이 걱정이었다. 비록 완치 판정을 받으시긴 했어도 갑상선암도 있었던 스님이라 이번엔 걱정이 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렇게 병이 많으면 으레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알았다.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이었는지 말이다. 선배스님도 그 병을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셨다.

포교와 수행이 둘이 아니라 말한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말이 그 뜻이다. 수행의 기본은 방하착(放下著), 내려놓음이다. 내려놓는다는 뜻은 온전히 받아들임에서 비롯된다.

나를 받아들이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시대를 받아들일 때 수행의 첫 걸음이자 전법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다.



시현 스님
안양 행복선원 주지



송마나의 **시절인연**

빛나는 소금 기둥이 되고 싶다

깊은 밤, 가로등이 흐릿한 불빛으로 떨고 있다. 바닥에 수북이 쌓인 낙엽들이 바람의 기척에 몸을 움칠거린다. 물기가 쏙 빠진 소금 알맹이들은 더는 썩지 않고 하얀 꽃을 피우는데 바싹 마른 낙엽들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컴컴한 하수구 틈새로 곤두박질한다. 그만해도 다행이다. 도둑고양이가 먹이를 찾으러 낙엽 위를 살금살금 걸으면 핏기 빠진 낙엽은 그만 부서지고 만다.

낙엽이 밟혀 실핏줄이 터질 때 그 울음소리는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한다. 생의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도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지 못하면 불확실한 세상과 힘겨운 현실에 항복하고 마는 것인가.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는 생멸 이전으로 나아가는 유예 상태의 목소리일지도 모른다. 단수이면서 복수인 낙엽들, 무수한 얼굴과 몸짓과 목소리가 하나로 합체되어 미완의 말줄임표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

희미한 달빛마저 자취를 감춘 겨울밤이 허무한 멜랑꼴리로 깊어간다. 바람이 진눈깨비를 몰고 와 창유리를 흔든다. 진눈깨비는 자취를 감추고 물방울들이 유리창에 가는 선을 그으며 천천히 흘러내린다. 나는 손으로 유리창을 훔쳐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댄다. 입안에서 소금 맛이 살짝 나는 것 같다. 하얀 소금꽃이 축축한 겨울에도 피어나는 것인가.



그림 · 최주현

책상의 앉은뱅이 달력에 붙어 있는 마지막 장이 엽록소를 잃은 누런 잎새처럼 금방이라도 떨어져 내릴 것 같다. 한 해를 마감하는 며칠 남지 않은 날짜들은 회한과 안타까움으로 한숨짓고 있다. 세월이 몸피를 지닌 것도 아니고, 저 달력 속의 숫자들은 한낱 개념이 아닌가. 그런데도 나는 한 해의 끝에서는 떠도는 낙엽처럼 침울하다.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투명한 소금이 되고 싶은데,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으로 차가운 겨울밤에 덜덜 떨고 있다. 롯은 죄악의 도시 소돔이 멸망할 것을 알고 가족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다.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조금만 더 걸으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데 무엇이 그녀를 뒤돌아보게 했을까? 그녀는 믿음이 부족했다고? 아냐, 일상의 익숙한 삶이 그녀를 붙잡았을 것이다. 나보다 강한 능력을 지닌 신의 명령이나 사회적으로 조성된 과격한 제도를 뿌리치지 못한 연약함도 부끄럽다. 하지만 삶을 좀 먹는 것은 낡은 고정관념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따르는 안이한 행동, 아무런 성찰 없이 받아들이는 편협된 사고, 절제할 줄 모르는 감정, 여기에 게으름이나 나태함 같은 그릇된 습관 아닐까.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한 해 한 해 쌓여 안이한 삶이 되어 소금 기둥처럼 굳어져 버린 것이다.

어찌 소금 기둥도 소금 장미로 피어나고 싶지 않겠는가. 허무와 불안과 미혹으로 엉클어진 마음을 정화하는 순백의 소금 결정체가 되고 싶었다. 오만과 편견과 자랑이 난무하는 대화에 침묵으로 감칠맛을 드리우는 소금 알갱이가 되리라 다짐했다.

갑진년(甲辰年) 연말, 나는 안일한 매너리즘에 빠져 삶을 부식시키는 탐진치(貪瞋痴)를 빼내지 못하고 여전히 소금 기둥으로 눈물 흘리고 있다. 소금 눈물이 흐를수록 갈증은 심해진다. 고요한 정적 속에 가부좌로 앉아 본다.

〈작가〉

기자칼럼

경주 낭산 '능지탑', 재조명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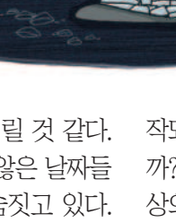
경주 동남쪽의 '낭산(狼山)'은 선덕여왕릉을 비롯한 주요 신라왕실 및 불교 유적이 밀집된 곳으로 삼국시대부터 신성한 '불국토(佛國土)'로 불려왔다. 경주오악인 남산에 비해 주목도가 낮은 낭산에 불교적 가치 조명이 필요한 문화유산이 있다. 바로 낭산 서쪽의 '능지탑(陵只塔)'이다.

능시탑 또는 연화탑으로 불린 능지탑은 1969~1971년간 4차례에 걸친 낭산 일대 조사에 따라 신라 문무왕의 화장터로 추정됐다. '문무왕릉비'가 발견된 사천왕사지와 능지탑이 가까운 점, 능지탑의 '능(陵)'이 무덤을 뜻하는 한자인 점, 탑의 내부 중앙 하단부와 주변 지층이 까맣게 그을리고 숯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능지탑 일대 조사결과를 전부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 1970년에 이뤄진 조사에서는 탑 주변에 진흙으로 빚은 소조불좌상과 대좌 조각들이 발견됐다. 또한 탑 몸체 사면에 불상을 봉안하던 너비 약 4m의 감실이 확인돼 능지탑이 단순한 화장터가 아닌 불탑(佛塔)으로 기능했음을 암시한다.

국가유산청 주최로 11월 13~14일에 열린 '신라 낭산의 시간, 미래로 잇다' 학술대회 토론자들은 낭산 능지탑에 대한 조사가 다시금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기조강연을 맡았던 박방룡 전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장은 "그을음을 보고 능지탑을 화장터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복원된 석재들 중 불상과 연화탑 등을 면밀히 조사해 탑의 성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좌장을 맡은 강봉원 문화재위원장 역시 "향후 능지탑의 가치 재조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능지탑 재발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리 역사의 대표 불교국 신라가 불국토로 여긴 낭산에 불교적 가치가 저평가된 문화유산이 있는 것은 불교와 문화유산의 가치가 저평가된 것과 마찬가지다. 능지탑 재연구는 신라 불교유산의 재조명뿐만 아니라, 경주 문화유산의 전반적인 가치와 의미를 더욱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불국토에 잠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깨우기 위한 연구를 불교계와 학계가 힘을 합쳐 시작할 때다.



김가령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병원비에 가족 생계까지, 무너진 가장의 눈물

네팔 이주민 노동자 구룽 옴 바하두르씨
아킬레스건 파열…수술비만 1000여 만원
재활도 포기…공장 폐업에 기숙사 문닫아
네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도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염불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현불논단



무상 법현 스님
열린선원장, 보국사 주지

사는 일 가운데 가장 뜻 깊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요즘이다. 종교라고 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활동을 종교라고 한다. 종교는 한자로 '마루 종(宗)' '가르칠 교(敎)'를 쓰고 있어서 으뜸(마루) 가르침이라고들 알고 있을 것이다. 도교, 불교, 유교 가르침이 동북아시아에 있었다. 절대자(神, God)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르침이 물밀듯이 서세동점(西勢東漸)했다.

일본학자 니시나 마에(1829~1897)가 서양의 사상, 학술 용어들을 번역하면서 '릴리전(religion)'은 동아시아에서 이미 쓰고 있었던 용어인 종교라는 단어를 채택해 썼다. 신의 가르침 따라 '신을 의지해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는 종파의 가르침을 말이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등과 같은 느낌인 예수종(耶蘇宗)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었다. 나중에 종교는 으뜸가는 가르침, 수준이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일반화되었다.

종교 가운데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종교가 무엇일까? 아마도 불교라고 불자들은 생각할 것이다. 기독교인 등 이웃종교인들이 불교인과 대화를 할 때 가장 높게 평가하는 항목이 있다. 바로 참선 수행이다. 그들은 영성(靈性, divinity)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한다. 하지만, 늘 스스로 영성이 부족하다고 반성한다. 따라서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참선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참선 성취 어려운 사람 위한 '염불'
〈깃발경〉에 나온 '불수념'서 비롯돼
염불 정진, 초기불교 당시부터 수행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참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참선하는 방법은 시대와 사람들을 따라서 달라졌다. 초기불교를 지나 테라와다(長老) 불교에서는 사마타, 위빠사나를 통해서 법(法, dharma)을 바르게 이해하여 깨친다고 한다. 북방 마하야나에서 참선(參禪)이라고 변화시킨 방법론은 말씀(話, 話頭)을 주제로 참선하는 간화선(看話禪) 수행법이 발달했다.

하지만 결과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낀다. 때문에 보다 좀 쉬운 방법을 고민한다. 그것이 바로 정토왕생, 염불정진이다. 다른 전통인 밀교 수행의 방법으로 만트라(Mantra)와 무드라(文豆婁) 정진이 있다. 만트라는 흔히들 주문, 진언, 다라니 수행이라 생각하는데 명확하게는 참말씀(眞言) 정진이라 할 수 있다. 경전 원본들을 얻으러 갔던 현장 법사가 만트라를 주(呪)라고 옮기면서 벌어진 일이다. 문두루는 신라 명랑(明朗) 법사가 당군(唐軍)을 물리치는 비법에 쓸 만큼 에너지, 효과가 높은 정진법이다. 요즘 말로는 수인, 결인작법이다.

이들의 뿌리는 무엇일까? 느닷없이 생겨난 것이거나 이웃에서 흘러들어온 것일까? 초기경전의 가르침에 의하면 '고요한 곳에 고요히 홀로앉아 골똘히 생각(獨一靜處專精思惟)하기'다. 잡아함 〈불응단제경(不應斷除經)〉 등에 나오는 참선 방법이다. 부처님 시대의 정서로 본다면 부처님 말씀 등을 듣고 생각해 제 것으로 만들기(自己化)다.

과녁(目標)은 윤회하지 않는 해탈(vimutti)이다. 염불, 주력 정진은 어디에서 비롯했을까? 바로 〈깃발경(Dhajaggasutta)〉의 가르침에 나오는 '불수념(佛隨念)'이 곧 염불이다. 마하야나의 뿌리도, 테라와다의 뿌리도 역시 초기불교의 경전에 닿아있음을 알 수 있다. 깊이 생각하기라는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본다.

내면의 고통,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

세간과 출세간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자기 마음을 보는 대신 경전을 보거나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성지순례를 가거나 종교의식에 참석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정서로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것은 정확히 회피이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자아의 영리한 방어기제 중 하나이다. 자아초월심리학의 개척자로서 동양의 지혜와 서양 심리학의 통합을 위해 노력한 저명한 임상심리학자인 존 웰우드는 이것을 '영적 우회'라고 이름 붙였다. 회피는 자기 내면의 욕구나 상처 그리고 불편함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다.

고통이라고 하면 보통 감정적으로 큰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관한 생각이나 감정이 과거나 미래로 옮겨가면서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의 상태이다. 현재의 경험에서 벗어나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고통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내면의 잡음도 고통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멋지게 꾸미고 고요한 것처럼 보이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고통이 비집고 나온다. 어떤 사람은 문제와 고통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문제가 고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인식할 때마다 자신의 내면을 보라! 그러면 '나'가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통은 '나'라는 집착이 있을 때 발생한다. 비교의 기준이 내 안에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문제나 고통이 외부(남 탓)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내 문제)는 것을 인식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지름길은 무엇일까? 고통을 알아차린다면, 내면의 고통(불편함, 불쾌함, 불안, 두려움, 화, 수치심, 죄책감 등)을 직면할 수 있는가! 마주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면의 고통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할 때 벗어날 수 있다.

'See'는 (눈으로) 보다 외, 주의하다, 이해·인식하다, 알아내다, 경험하다, 만나다의 의미가 있다. 붓다는 와서 믿으라고 말하는 대신, '와서 보라'고 권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보는 것' 즉, 알고 이해하는 것이지 신앙이나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통을 알아차리고 관찰할수록 그것은 녹는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빛(明)이라고 한다.

마주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방어이다. 아이는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기제를 혼자서는 발달시키지 못한다. 어린 뇌는 생존을 위해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는 대신, 안전하게 자신이 의식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자기도 모르게 억압한다.

성장하면서 환영의 자아는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방어 전략을 생성한다. 그리고 점점 더 자신과 분리된다. 그러니 자신이 어떤 방어 전략을 사용하는지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이미 길을 찾은 것이다. 일단 의식할 수 있게 되면, 방어하는 대신 내면의 고통과 연결하여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경험하라.

붓다는 말한다. "약이 좋으면 병이 나으리라. 누가 그것을 준비했는지, 어디서 그것이 유래되었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社 說

태고종 종조 선양이 기대되는 이유

태고종 총무원은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 절강성 후저우시 일원에서 중국불교와의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임제 선사 제18대 법손 석옥 청공 선사에서 고려의 태고 보우 국사로 이어지는 선법(禪法) 전승을 조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태고 보우 국사는 1346년 봄 원나라 수도로 건너가 1347년 여름 후저우 하모산 천호암에서 석옥 청공에게 임제의 법맥을 전수받았다. 임제종의 법맥이 해동으로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법통설에 대한 논쟁은 조선 후기부터 현대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조선 후기에는 태고보우법통설과 나흥혜근법통설이 대립했고, 현대에서는 보조지눌종조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논쟁을 차치하더라도 석옥 청공-태고 보우 법맥은 임제의 법이 한반도로 전해졌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다.

태고종은 이번 방중을 통해 후저우시 불교계와 교류를 통한 태고 보우 국사 선양 사업의 국제화의 물꼬를 텄다. 특히 석옥 청공-태고 보우의 법맥 전수가 동아시아 불교 교류의 전형임을 조명하고, 두 선지식의 법연지인 천호암에 한중불교우호교류센터를 기공한 것은 큰 성과다.

태고 문도들의 과제도 명증하다. 이번 성과를 지속적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후학들이 종조 선양사업의 국제화를 통해 한국불교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이것이 태고종 종조 선양 사업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사회참여 실천은 불교의 미래다

일선 여론조사 기관에서 종교 관련 설문조사를 할 경우 호감도와 신뢰도 종교 1등을 불교는 놓쳐 본 적이 없다. 일반 대중이 불교에 대해 호감과 신뢰를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영향력이 높은가라고 묻는다면 돌아오는 답변은 '글쎄'일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 관련 설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11월 28일 개최한 '교구(지역불교)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보고회'에서는 일반인 717명, 공공영역 종사자 3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사회 내 불교의 신뢰 평판'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지역주민과 정서적 유대감이 가장 높은 종교는 불교였다. 친근한 종교에 대해 42.4%, 호감있는 종교로는 39.8%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공공영역의 측면에서는 불교가 전체의 19.1%를 차지하며 지역주민에게 불교는 사회참여도가 다소 낮은 종교로 비춰졌다. 이는 지역불교가 주민에게 긍정적 인식은 주지만, 지역사회로의 회향은 적은 편임을 보여준다.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사회 참여 및 실천'임이 나타난 것이다.

서울, 중부권 등 다섯 권역에서의 응답도 주목해야 한다. '불교가 신뢰받기 위한 최우선 활동'으로 이곳 지역주민들은 '사회적 약자와 인권 활동'과 '정신 건강 관련 활동' 확대를 요구했다. 이 설문결과는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전체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어려운 곳을 보살피고, 정신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것. 대중들이 한국불교에 던진 화두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2월 4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2월 4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2월 4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KOMSCO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장인정신과 특수 압인제품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귀금속에서 일반 소재까지 고유하고 예술성이 뛰어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년고찰 시리즈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현신으로부터 전해 받아 온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곳으로 통도사 창건의 근본정신이 깃든 금강계단은
대웅전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금(Au999)
중량 Weight	31.3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4,499,000원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은(Au999)
중량 Weight	31.1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198,000원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취급 유의사항 | 소재 특성상 공기, 수분,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변색 혹은 레드스팟(붉은 점)이 생길 수 있으니 메달을 캡슐에서 꺼내지 마시고 밀폐상태를 유지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념메달은 육안검사를 통해 모두 품질이 보증된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